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지난 23년간 ‘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보았는가?

‘북한이탈주민’, ‘탈북민’, ‘새터민’ 관련 언론 보도 빅데이터 분석

박종민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 교수
주호준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 석사수료
정영주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 박사수료
김현우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 석사

Media reports and public perceptions of ‘North Korean refugees’

A study on linguistic sentiment according to the political inclinations of the government and the media since 1998

Jongmin Park*

(Professor, Department of Media, Kyung Hee University)

Ho Jun Joo**

(Master’s Candidate, The Graduate School of Media, Kyung Hee University)

Young Ju Jung***

(Doctoral Candidate, The Graduate School of Media, Kyung Hee University)

Hyeon Woo Kim****

(Master, The Graduate School of Media, Kyung Hee University)

In this study, about 200,000 linguistic morphemes and sentimental words were investigated for Naver articles including ‘North Korean refugee’, ‘North Korean defector’ and ‘North Korean defector(positively refined)’. The research question examined was in regards to how the linguistic intensity, emotional expression frequency, and positive/negative emotional direction in articles differed across five governments and two opposing factional media since 1998. Additionally, secondary data for the period that could be examined (2011~2014) were analyzed to understand the change in public percep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First, in the articles, the terms, ‘North Korean defectors (132,080 articles)’, ‘North Korean refugee (44,281 articles)’, and ‘North Korean defector (positively refined) (27,262 articles)’, in this respective order, were used most frequently to refer to North Korean

* jongmin@khu.ac.kr. corresponding author

** joo4456@khu.ac.kr

*** storyjenny@naver.com

**** hwkim93@naver.com

migrants. 'North Korean defector' was the most negative, and recently, the expression 'North Korean refugee' was a positive and common label used. As for the direction of emotion, positive articles on 'North Korean defector' and 'North Korean defector(positively refined)' have maintained a higher frequency than that of negative articles. Looking at the emotional language of articles related to North Korean migrants and the temporal relationship of important inter-Korean relations, it was found that the social interest in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decreased as interest in North Korea increased, due to large positive and negative inter-Korean issues. This is expressed as a so-called 'frame of conflicting interest between North Korea and North Korean refugees in the media (North Korea ↔ North Korean refugee)'. Whereas, when view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media sentiment frame of the pro-North Korean government was not a 'frame of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North Korea and North Korean refugees (North Korea ↔ North Korean refugee)', but a 'pro-North Korean sentiment frame that embraces North Korean refugees (North Korea ⊃ North Korean refugee)'. In times of rapid change in inter-Korean relations (Kim Dae-jung, Roh Moo-hyun, Park Geun-hye governments, etc.), there was also observed a sharp fluctuation in the direction of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Looking at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media's political orientation, first, the articles related to 'North Korean refugee' + 'North Korean defector' + 'North Korean defector (positively refined)' tended to have a lower verbal intensity than that of the progressive media. Second, the conservatives used 'North Korean defector' more than 'North Korean refugee' compared to the progressive media, and reports related to 'North Korean refugee' dealt with various topics, causing a great wave of expression. Third, the emotional expression of articles related to North Korean refugees was more in the conservative media, and furthermore, the positive emotional direction of the conservative media in all governments except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as higher than that of the progressive media. Lastly, as a result of the public perception survey on North Korean refugees, being male, older in age, higher in education level, higher in income, and more progressive was associated with reporting higher intentions to accept North Korean refugees. This result was discussed by applying the concept of attribute agenda setting.

Keywords: 'North Korean refugee', 'North Korean defector', 'North Korean defector (positively refined)'
Sentiment words analysis, Public opinion

1. 서론

지난 2020년은 6.25 전쟁 70주년인 해였다.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됨과 더불어 남북 간의 자유로운 민간왕래가 강력히 단절된 상황 속에서도 70여 년 동안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다. 2019년을 기준으로 통일부가 발표한 인원이 누적 33,523명에 이르고 있고, 2020년에는 코로나의 세계적인 유행에도 불구하고 229명이 더 남한으로 들어왔다(통일부, 2020). 이들이 다양한 이유로 북한을 탈출하고 남한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065%에 불과하지만, 그들이 남한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통일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안고 살아가는 한반도에서 70년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남한사회가 북한사회를 이해하고 통일을 대비하는 데 있어 이들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들어온 사람들을 인식하는 첫 번째 요소는 이들을 부르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1962년 이후 월남귀순자, 귀순용사, 귀순북한동포, 새터민뿐만 아니라 탈북자, 월남자, 탈북주민, 귀순자, 귀순동포, 북한사람, 북한탈북주민 등 다양한 용어들이 북한이탈주민(North Korean refugee)에게 사용되어 왔다(노길수, 2020). 현재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가 2017년부터 공식적인 용어로서 적절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언론이나 일반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탈북자', 혹은 2008년 이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새터민'이라는 용어가 흔하게 사용되고 있어 혼용되는 용어에 내포된 의미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우리 국민의 통일인식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탈북 배경에 관심을 갖고, 남한사회에서의 안정된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적 방안들과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들이 시작되었다(김성윤, 2009; 정주신, 2003; 최승호, 2010). 초기에 기본적인 정책적 보호와 경제적 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나아가 본격적인 탈북의 행렬이 이어지는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국민이면서도 이방인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복합적인 의미를 재해석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사회통합적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연구들도 나타났다(신호숙·김창환·왕영민, 2016; 이진석, 2018). 그러나 여전히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은 지원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한 존재, 잠재적 위험이 되는 존재로 생각하는 부정적 인식과 정서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다(김대욱, 2021; 신호숙 외, 2016; 최윤희·김수연, 2013; 통일평화연구원, 2020).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지칭하는 명칭이 '탈북자', '새터민', '귀순자', '탈북민',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여러 학술연구에서도 혼재하고 있어 각 명칭들이 정확히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인식되고 있는지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있어 북한이탈주민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언론의 보도는 가장 용이한 정보원이라 할 수 있다. 미디어에 북한이탈주민이 등장하기 시작한 2000년대 초중반을 기점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들도 늘기 시작했으나,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언론보도 연구(박종민·이창환, 2011; 이창환·김경일·박종민, 2010)에서처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도프레임의 유형이 진보, 보수 언론의 기사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거나(곽정래·이준웅, 2009; 유호열·박현선, 2011; 이용철, 2006; 임종섭·김명준, 2015) 언론사별 기사의 북한이탈주민 보도내용에 대한 내용분석(김성욱, 2009)이 주를 이루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지칭어의 중요성에 초점을 둔 몇 가지 연구들과 네트워크 분석, 수용자 영향 분석 등의 방법을 적용한 연구들도 등장하였는데, 2000~2013년 동안의 신문기사에서 ‘귀순자’, ‘탈북자’, ‘새터민’, ‘탈북민’ 등 북한이탈주민 지칭어나 ‘북한’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신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문장을 단위로 ‘북한’의 공출현단어(co-occurrence word)를 정부별, 연도별로 분석하거나 언론보도에 나타난 북한이탈주민 관련 보도의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기도 하였다(권호천, 2017; 김일환·이도길·강진웅, 2017; 최유숙, 2016). 언론보도에 나타난 북한이탈주민 관련 단어가 수용자 언어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의제설정효과나 네트워크 의제설정 가능성을 확인한 연구들도 있다(김대욱, 2020; 김병철, 2020).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단어에 중점을 둔 기존의 빅데이터 분석 연구들에서는 공출현단어들의 빈도와 종류를 파악하고 공출현단어들의 부정성과 긍정성을 파악할 수는 있었으나, 언론보도에서 사용되는 보도경향으로서 감성어분석(sentiment words analysis)까지 포함된 포괄적인 언어적 강도(language intensity), 정서 표현 정도까지 파악할 수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1998년 이후 203,623개의 언론 기사 분석과 대국민 인식조사에 근거하여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언론 보도와 국민 인식을 중단적이며 종합적으로 진단하고자 한다.¹⁾ 구체적으로 1998년 이후 진보와 보수 정부가 교차되었던 시기 동안 언론기사에서 ‘북한이(탈)주민’, ‘탈북민(자)(North Korean defector)’, ‘새터민(North Korean refugee(positive refined))’이 언급된 전체 기사들의 언어적 강도, 정서적 표현 빈도(emotional expression frequency), 정서의 방향성(emotional directivity)을 분석하여 각 용어별, 정부별, 언론의 정치 성향 별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뉴스 빅데이터 분석결과와 2차 자료인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11~2014년)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지난 20여 년간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우리 사회의 합

1)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자)’+‘새터민’, ‘북한이(탈)주민’, ‘탈북민(자)’, ‘새터민’ 등 4가지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 네 가지 유형의 통일적 표현으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의된 인식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2. 문헌 연구 및 연구문제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존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의는 1997년 7월에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 제1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통일부, 2019).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부르는 법적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62년인데 월남귀순자라고 부르기 시작하여 이후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1978년의 귀순용사, 1990년대의 귀순북한동포, 2005년의 새터민 외에도 일상적으로 탈북자, 월남자, 탈북주민, 귀순자, 귀순동포, 북한사람, 북한탈북주민 등의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노길수, 2020).

초기의 용어들은 정치이념적 차원에서 민주사회인 남한을 택한 전사와 같은 의미를 부여하였으나 북한의 경제적 빈곤과 기아를 피해 중국이나 제3국을 경유하여 남한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동포나 주민과 같이 친근한 개념을 담아 부르게 되는 등 상황에 따라 달리 사용하여 왔다. 이런 용어의 혼용은 우리 국민들이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을 차별적으로 규정짓게 하는 용어들을 대신해서 야심차게 도입했던 ‘새터민’이라는 용어는 남한이라는 새로운 터전에서 안정된 정착을 하기는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는 하지만, 다문화 시대에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귀화하여 남한에서 살아가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적절하게 정의하는 용어라고 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최유숙, 2016). 현재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가 2017년부터 공식적인 용어로서 적절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언론이나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1994년 이후 법률상의 용어로서의 ‘탈북자’, 혹은 2008년 이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새터민’이라는 용어가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어 혼용되는 용어에 내포된 의미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현황을 살펴보면 1998년 이전까지는 947명이 국내로 입국하였는데, 2005년 이후 2,000명 내외의 입국 인원을 유지하여 2019년 12월 기준으로 현재까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33,523명이 이른다(노길수, 2020). 이처럼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정착함에 따라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안정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통일부는 각종 정착지원제도를 시행하며 북한이탈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통일부, 2020), 2018년 4월 7개 분야, 22개 중점과제가 포함된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을 수립하고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2018년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및 ‘사회통합’의 정책하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실생활에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통일부, 2019).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경제적 빈곤을 피해 남한으로 들어온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연구들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정주신(2003)은 국내에 들어오는 ‘탈북자’들이 탈북하게 되는 배경을 북한의 경제적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들의 남한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과제로 교육, 정착지원, 취업 및 재할 능력 등 경제적 자립에 초점을 둔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이후 김성윤(2009)과 최승호(2010)의 연구에서는 2006년 통일부에서 장려한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는 사회통합방안을 독일사례를 바탕으로 물질, 제도적 지원으로서 외적인 정치경제학적 통합방안과 함께 문화차이 인식, 상호이해교육 등 내적 사회문화적 사회통합방안을 마련해야 하고(최승호, 2010), 새터민 정착과 지원에 있어서 복잡한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주민생활통합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김성윤, 2009). 2000년부터 점차 늘기 시작하여 2011년까지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치가 연 2000여 명을 훌쩍 넘었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들이 남한사회에서 불안요소가 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남한사회에 정착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이후 북한이탈주민은 1000여 명대를 유지하며 꾸준한 유입이 계속됨에 따라 신효숙, 김창환, 그리고 왕영민(2016)은 북한이탈주민의 속성을 분단 이후 ‘북한주민’, 탈북 이후 ‘탈북자’, 한국 입국 이후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세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이들의 다층적, 양면적 속성을 이해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도 단편적 정책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사회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강조하였다. 이진석(2018)의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지원 정책 수립이 지난 20여 년간 탈북이주민의 보호에 기반하면서 여전히 남한 사회에서 이질적인 주변인으로 다루어지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들의 자립과 자활을 돕는 체계적인 제도의 마련과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방정부와 민간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사회통합 차원에서 정부의 정착지원방안에 국한되어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로 통일을 대비한 남북주민 통합의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정착’, ‘사회통합’이 우리 사회의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 헌법에 명시된 대

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민권이 부여되지만, 탈북자를 보는 일반 국민의 시각은 여전히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의 잠재적 위협, 또는 사회적 소수자 및 경제적 취약자로서 인지되고 있다(신효숙 외, 2016). 최윤형과 김수연(2013)의 연구에서도 국내 주요 일간지에 실린 탈북자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분석한 결과에서 남한 국민들은 탈북자를 부정적 시각으로(65.4%), 부정적 정서로(77.0%), 권위적/이기적(52.6%)이며 침략적/미개적 특성(37.2%)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평화연구원이 실시한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탈북민에 대해 공중이 느끼는 친근감, 사회적 거리, 수용도 등은 지난 10년 동안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다(통일평화연구원, 2020).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지칭하는 명칭, 또한 '탈북자', '새터민', '귀순자', '탈북민',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학술연구에서 혼재하고 있어 이러한 명칭들이 언론과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인식되고 사용되는지는 모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갖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언론매체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정의하는 명칭에 따라 언론 보도의 경향은 어떠한 양상을 보여왔는지 알아보기 위해 '탈북자(민)', '새터민',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세 가지 명칭 각각과 세 가지 명칭 모두('북한이(탈)주민'+ '탈북민(자)' + '새터민', '탈북민(자)')에 대한 언론 보도 기사의 빈도와 기사의 언어적 강도, 정서적 표현 빈도와 방향성 등 언론의 보도경향이 각각의 세 가지 명칭과 세 명칭 전체에 따라 최근 5개 정부(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 걸쳐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1998년 이후 '북한이(탈)주민'+ '탈북민(자)' + '새터민', '탈북민(자)', '북한이(탈)주민', '새터민'이 포함된 네이버 내 전체 기사의 언어적 강도, 정서적 표현 빈도, 정서의 방향성(긍 부정)은 대한민국 정부별로 어떠한가?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언론미디어분석 연구

남한의 국민들은 북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다양한 언론매체에서 전달하는 정보들을 활용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북한의 경제적 고난, 이념적 압박, 자유사회에 대한 갈망 등을 이유로 한국으로 오는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람들에게 북한소식을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북한정보 네트워크와 남한 네트워크의 교차점에 있는 스위처(switcher)의 역할을 담당하며 북한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 차별화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김명준·임종섭, 2015). 또한 국내 방송시장에 종합편성채널이 도입되고 모기업인 다양한 언론사들이 북한의 실상을 전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의 주요

정보원은 더이상 정부의 공식적인 북한관련 정보가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다. 정보교류의 중요성이 동독과 서독의 통일과정에서도 확인되었던 것처럼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해 북한과의 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일반대중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북한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얻게 되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보도하는 언론미디어의 분석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관련 언론 보도 연구를 살펴보면 미디어에 북한이탈주민이 등장하기 시작한 2000년대 초중반을 기점으로 늘기 시작했으나,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언론보도 연구에서처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도프레임의 유형이 진보, 보수 언론의 기사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거나(곽정래·이준웅, 2009; 유호열·박현선, 2011; 이용철, 2006; 임종섭·김명준, 2015) 언론사별 기사의 북한이탈주민 보도내용에 대한 내용분석(김성욱, 2009)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 현재의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언론의 보도경향은 탈북민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보여주기보다는 이념과 정책적 측면에서 특정 입장 내지는 논리에 따라 프레임을 지우고, 실제로 언론사들은 탈북민 문제를 반공정책적 관점에서 주로 다루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의 진보와 보수 성향에 따라 진보와 보수 언론들의 보도가 달라지는지를 다루고 있고, 그 결과는 언론별 편향성을 반드시 드러내는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곽정래과 이준웅(2009)의 연구에서 보수와 진보 언론 모두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탈북민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경향을 보였고, 보수언론에서 탈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더 심도 있는 원인과 대안을 제시하는 보도 경향을 나타낸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김병철(2019)의 연구에서는 보수 정부가 집권한 2007년부터 2018년 동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언론 보도 건수에서 보수 매체인 조선일보가 진보 매체인 한겨레보다 전반적으로 많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언론 보도 연구의 경향 또한 신문 사설의 내용분석이나 프레임 분석이 대부분이고, 정부와 언론의 정파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와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주로 연구해왔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김재한(2009)의 연구에서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기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분석한 결과, 북한에 대한 호감도가 정부에 따라 북한에 우호적인 김대중 정부에서 진보언론인 한겨레가 더 우호적인 사설을, 북한에 적대적인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수언론인 조선일보가 더 정부 편향적인 사설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환과 하진홍(2016)의 연구에서도 김대중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 보수신문(조선, 동아)과 진보신문(한겨레, 경향)의 통일 관련 보도 논조를 프레임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보수언론은 부정적 사설을, 진보언론은 긍정적 사설을 많이 썼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두 연구 모두에서 정부나 언론의 정파성에 따라 무조건적인 적대나 우호의 양상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화행, 이정기, 최진호, 정성호, 그리고 강경수(2015)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의 통일관련 기사 1,697건을 분석대상으로 내용 분석한 결과 정부와 언론의 정파성에 따라 기존 연구들에서 나타난 보수와 진보의 보도 프레임의 차이가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중립적 논조가 62%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박종민, 정영주, 주호준, 그리고 김현우(2020)의 연구에서는 노무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20년간 북한, 통일 관련 네이버 기사 전체(약 40만여 개)를 분석대상으로 언론보도의 언어 형태소 및 감성어 의 양상을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동일 기간 이루어진 '통일'에 대한 대국민인식 조사 데이터의 2차 자료 분석을 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진보성향의 노무현 정부에서의 언론보도가 북한과 통일에 대해 명확한 의미로 표현하는 경향인 언어적 강도가 높았고 감성적 표현도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인식조사에서도 진보 정부 시기일수록 '북한'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언론기사 전체가 북한,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 정서성을 나타냈고, 오히려 보수언론의 언어적 강도와 긍정적 정서성이 진보언론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는 점은 이례적인 결과였다.

이는 소위 진보와 보수로 불리워지는 언론의 정치성향이 북한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사 보도경향에서 북한에 우호적인 진보언론과 북한에 적대적인 보수언론별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지난 20여 년간 진보정부와 보수정부가 교차되었던 기간동안 언론의 정치성향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체기사의 보도경향을 종단적이고 객관적으로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 들어 북한이탈주민 지칭어의 중요성에 초점을 둔 몇 가지 연구들과 네트워크 분석, 수용자 영향 분석 등의 연구방법을 적용한 몇 가지 연구들이 등장하였는데, 최유숙(2016)은 2000~2013년 동안의 신문기사의 코퍼스 분석을 통해 '귀순자', '탈북자', '새터민', '탈북민' 등 북한이탈주민 지칭어의 공출현단어를 분석하였는데 사용빈도는 탈북자,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귀순자 순으로 나타났다(최고빈도: 탈북자 7,500, 새터민 400, 귀순자 150, 탈북민 60이상). '탈북자'의 공출현단어가 '새터민'의 공출현단어보다 높은 부정적인 의미운율을 보였고 '탈북'과 '이탈'의 공출현단어도 부정적 의미운율을 높게 나타내는 결과를 보였다. 김일환, 이도길, 그리고 강진웅(2017)의 연구에서도 같은 시기 '북한'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신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문장을 단위로 '북한'의 공출현단어를 정부별, 연도별로 분석하였다.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공출현단어 출현은 '탈북자', '새터민', '난민' 등의 공출현단어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부정적 의미의 공출현단어들이 98개로 긍정적 의미의 공출현단어(44개)보다 많았고, 2008년 이후 부정적 의미의 공출현단어들이 이전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욱(2021)의 연구에서도 미디어보도에서 '새터민'과 '북한이탈주민' 용어는 통일문제 등 국내적 이슈

와 연결하여 기사에 사용되지만, ‘탈북자’ 용어는 난민, 인권 문제 등 국제적 이슈와 연결하여 이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탈북자’라는 용어를 언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탈북자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언어 사용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단어에 중점을 둔 빅데이터 분석 연구들에서는 공출현단어들의 빈도와 종류를 파악하고 공출현단어들의 부정성과 긍정성을 파악할 수는 있었으나, 언론 보도에서 사용되는 보도경향으로서 언어적 강도, 정서적 표현 정도까지 파악할 수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하여 네이버 전체 기사를 수집하여 언론의 정치 성향에 따른 보도경향의 언어적 정서성을 5개 정부에 걸쳐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2〉 1998년 이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언론 보도의 언어적 강도, 정서적 표현 빈도, 정서의 방향성(긍 부정)은 언론의 정치성향(진보/보수)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별로 차이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대국민 인식조사 표본 분석인 〈연구문제 3〉은 20여만 개 언론 기사를 분석한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의 결과와의 부분적인 비교이며 재검증이다. 〈연구문제 3〉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2011~2014년 언론 보도와 같은 기간 동안 실시된 대국민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떠한 반응을 보여왔는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본 연구 결과의 분석적 함의를 확장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에 영향을 미친 국민들의 속성을 대국민 인식조사 표본을 근거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3〉 2011년에서 2014년까지 매해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수용의향에 속성들(인구학적 속성(성별, 나이, 교육, 소득), 개인 정치성향, 조사연도, 정부별(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데이터 분석으로 진행된다. 첫번째 분석은 네이버뉴스에서 ‘북한이(탈)주민’, ‘탈북민(자)’, ‘새터민’을 키워드로 하여 기사를 각각 수집한 최종 203,358개의 언론 기사에 대한 언어 형태소 및 감성어 분석이며, 두번째 분석은 한국종합사회조사(KGSS)²⁾를 활용하

여 2011년에서 2014년까지 매해 1,300명 대상으로 실시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closeness)과 수용의향(acceptance)’ 관련 대국민 인식 데이터 2차 자료 분석이다.

1) 뉴스에 드러난 감성 분석

(1) 데이터 수집

네이버뉴스에서 ‘북한이(탈)주민’, ‘탈북민(자)’, ‘새터민’ 키워드로 각각 검색하여 기사에 대한 기초 정보들을 수집하였다. 수집조건은 ‘관련도순’ 정렬로, 기간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월별’로 기사를 수집하였다. 수집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계적으로 기사 데이터를 수집한 만큼 무관한 기사를 필터링하는 과정이 필요하였으나 사람이 직접 기사를 분류하는 작업은 데이터의 양이 많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고 반면에 특정 단어나 패턴으로 기사를 분류하기에는 엄밀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대신에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의 뉴스검색 알고리즘을 통해 옵션과 검색 기간, 두 옵션을 조절하여 이 문제를 우회하고자 하였다.

네이버 뉴스검색은 기간 설정과 상관없이 1회 검색에 최대 4,000개 기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관련도순 옵션을 사용하면 네이버에서 내부 알고리즘을 통해 키워드와 관련 높은 기사를 우선순위로 먼저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에 따르면 내부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검색어와 기사 간의 유사성, 최신성, 스팸성 여부 등을 토대로 키워드와의 관련도를 계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토대로, 옵션을 관련도순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기간을 조절하며 검색된 4000개의 기사들을 관찰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이나 주 단위를 검색 단위로 하였을 때 관련도순 옵션에도 불구하고 무관한 기사가 많이 관찰되었으며, 반대로 기간을 늘려 두 달, 세 달 혹은 1년 단위로 기사를 검색하여 수집했을 때에는 월별로 4,000개보다 적게 기사를 수집하였고 검색단위에 맞춰 정권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관련도순 옵션이 적절하게 작동하여 관련 있는 기사가 수집되면서도 정권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한 달을 검색 단위로 고려하여 기사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렇게 본문을 수집하기 이전인 단순히 검색을 통해 나타난 기사들의 양은 총 244,866개로, 연도별로 파악하고자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 및 〈Figure 1〉 참조).³⁾

2) 한국종합사회조사는 2003년 이후 매년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11년에서 2014년까지 4년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수용의향을 조사하였다.

3) 특이사항으로 ‘북한이(탈)주민’과 ‘탈북민(자)’ 중에서 1998~1999년에 검색된 기사는 모두 연합뉴스의 기사로 나타났다. 그리고 ‘새터민’은 2004년부터 기사가 검색되었으며, 첫 기사는 2004년 9월 21일의 동아일보 기사로 나타났다.

Table 1. Number of articles by year(1998~2020) found on Naver News related N.K. refugee, N.K. defector, N.K. defector(p)

	North Korean refugee	North Korean defector	North Korean defector(positively refined)
1998	35	106	
1999	108	451	
2000	41	352	
2001	136	582	
2002	129	2,416	
2003	101	1,435	
2004	390	4,656	16
2005	316	3,187	383
2006	241	3,207	600
2007	293	2,448	913
2008	551	4,427	1,233
2009	1,064	3,701	1,455
2010	1,748	5,378	1,771
2011	2,616	7,177	2,156
2012	3,721	13,907	3,208
2013	4,644	11,394	2,874
2014	5,449	14,946	3,935
2015	6,239	11,569	3,552
2016	6,329	14,811	3,318
2017	4,868	10,046	2,944
2018	5,719	11,727	2,980
2019	5,802	9,266	2,816
2020	5,110	16,505	1,368
total	55,650	153,694	35,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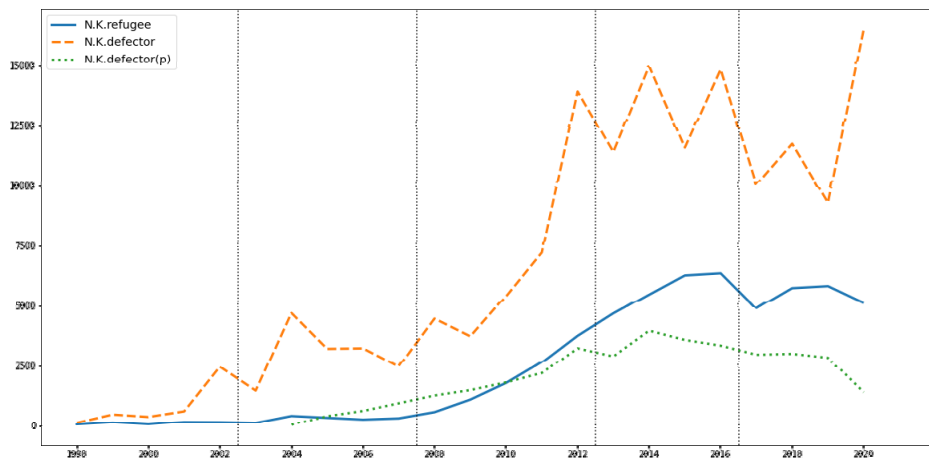


Figure 1. Number of articles by year(1998~2020) found on Naver News related N.K. refugee, N.K. defector, N.K. defector(p)

다음으로, 검색으로 수집한 1차 기사자료(244,866개)에서 '뉴스링크'를 통해 2차적으로 기사의 본문을 수집하였다. 이때 수집 과정에서 다음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첫째로, 뉴스링크에 오류가 있거나, 기사가 삭제되어 본문을 열람할 수 없는 기사들은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둘째로, 속보성 뉴스를 제외하고자 한 문단이 채 안 되는 200자 이하의 기사는 모두 역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1차 기사자료(244,866개)에서 본문을 수집할 수 없거나 200자 이하 등의 사유로 분석대상에 제외된 기사 41,243개가 제외되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키워드로 수집한 기사는 총 44,281개, '탈북민(자)' 키워드로 수집한 기사는 132,080개, 그리고 '새터민' 키워드로 수집한 기사는 총 27,262개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이용되는 수집된 기사는 총 203,623개로, '뉴스제목', '언론사', '년도', '월', '뉴스일부내용', '뉴스링크', '기사본문'의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탈북민(자)'+ '새터민' 키워드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탈북민(자)', '새터민' 각각의 키워드별로 수집한 기사들을 총합한 후, 총합된 기사들 중에서 중복된 기사 265개('뉴스제목', '언론사', '년도', '월', '뉴스일부내용' 기준)를 제거하여 총 203,358개의 기사가 분석되었다. 말하자면, 집단 A와 집단 B의 합집합을 구하기 위해 집단 A와 집단 B를 더한 후 집단 A와 집단 B의 교집합을 제거하였다.

(2) 데이터 분석: 감성 변인 추출 및 분석 과정

언어적 강도(language intensity)가 높다는 것은 문장이 화자의 감성 상태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바워즈(Bowers, 1963)의 연구에서 언어적 강도를 '화자의 태도가 중립(neutrality)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나타내는 언어의 질(the quality of language)'로 정의한다. 이는 문장에서 감성 상태를 얼마나 강하게 드러낼 수 있는지(Wilson, 2008)를 나타내기도 한다. 해밀턴(Hamilton, 1998)에 따르면, 단어별로 그들에 내재한 언어적 강도가 순함(mild)에서 강렬함(intense)의 범위까지 존재하므로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일지라도 어떠한 단어로 표현되느냐에 따라 언어적 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슬프다'와 '몹시 슬프다'에서 '몹시'라는 단어가 '슬프다'라는 표현을 강하게 하므로 후자의 문장이 언어적 강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혹은 '슬프다'와 '통탄하다'에서는 표현의 차이 때문에 후자의 문장이 언어적 강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학적 강도는 기사의 본문에 존재하는 높음(HIGH), 중간(MEDIUM), 및 낮음(LOW)에 해당하는 형태소의 총 개수를 본문에 존재하는 형태소 총 개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기사 본문의 정서적 상태를 평가하고자 정서적 표현 빈도와 정서의 방향성을 관련 변인으

로 추출하였다. 정서적 표현 빈도는 기사 본문에 있는 정서적 단어가 존재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높을수록 해당 문장이 정서적 표현의 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적 표현 빈도는 기사에 존재하는 긍정(POS), 부정(NEG), 및 복합(COMP)에 해당하는 형태소 개수를 기사에 존재하는 형태소의 개수로 나눈 값으로 추출한다.

정서의 방향성은 기사의 정서 상태가 긍정적인지 혹은 부정적인지를 말한다. 정서의 방향성은 기사에 존재하는 긍정(POS) 형태소 개수에서 부정(NEG) 형태소 개수를 뺀 뒤, 이를 기사에 존재하는 형태소의 총 개수로 나눈 값이다. 긍정(POS)인 형태소를 기준으로 값이 양(+)이면 긍정적인 정서임을, 음(-)이면 부정적인 정서임을 말한다. 따라서 정서적 방향성을 다시 정서적 방향성(긍정)과 정서적 방향성(부정)으로 분류하였다. 정서적 방향성(긍정)은 정서의 방향성이 양의 값을 가진 기사를 나타내며, 정서적 방향성(부정)은 정서의 방향성이 음의 값을 가진 기사를 나타낸다. 이때 0값은 긍정값과 부정값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다.

$$\begin{aligned} \text{기사별_언어적 강도} &= \text{언어적 강도(Intensity)가 존재하는 형태소 개수의 합}^4/ \\ &\quad \text{‘기사본문_전처리’의 형태소 개수}^5 \\ \text{기사별_정서적 빈도} &= \text{언어적 극성(Polarity)이 존재하는 형태소 개수의 합}^6/ \\ &\quad \text{‘기사본문_전처리’의 형태소 개수} \end{aligned}$$

$$\begin{aligned} \text{기사별_정서적 방향성} &= [\text{긍정(POS)에 해당하는 형태소 개수} \\ &\quad - \text{부정(NEG)에 해당하는 형태소 개수}]/\text{‘기사본문_전처리’의 형태소 개수} \\ \text{기사별_정서적 방향성(긍정)} &= \text{기사별_정서적 방향성} > 0 \\ \text{기사별_정서적 방향성(부정)} &= \text{기사별_정서적 방향성} < 0 \end{aligned}$$

기사를 분석단위로 하여 ‘기사별_언어적 강도’, ‘기사별_정서적 표현 빈도’, ‘기사별_정서적 방향성’을 추출하고자 수집한 기사 본문을 정제 및 분석하였다. 분석과정에서 ‘기사본문’ 중 기사 관련 정보, 매체이름, 광고 등과 같이 기사와 관련없는 내용을 제외하였다. 기사별로 파이썬(python 3.8.3버전)의 Konlpy(0.5.1버전) 라이브러리에서 Komoran(2.0버전)분석기를 사용하여 형태소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KOSAC의 감성 사전(김문형·장하연·조유미·신효필, 2013)을 이용하여 언어적 강도, 정서적 표현 빈도, 정서의 방향성(긍·부정)을 추출하였다. 본

4) 기사 본문의 형태소 중에서 HIGH, MEDIUM, LOW에 해당하는 형태소 개수의 총합으로 구성된다(김문형 외, 2013).
 5) 예) 북한이탈주민이 3만 명에 이르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NNP”+“이/JKS”+“3/SN”+“만/NR”,”명/NNB”+“에 /JKB”+“이르/VV”+“고/EC”+“있/VX”+“다/EF”의 형태소 10개
 6) 기사 본문의 형태소 중에서 COMP, POS, NEG에 해당하는 형태소 개수의 총합으로 구성된다(김문형 외, 2013).

연구에서 이용한 KOSAC사전은 기사를 대상으로 구축된 감성 사전으로, 연구자들이 문장에 강도(intensity)와 극성(polarity; 정서적 표현)을 형태소 단위에 주석을 매겨 취합하였다(신호필·김문형·박수지, 2016). KOSAC사전에서는 형태소별로 강도와 극성이 확률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예컨대, ‘뒤떨어지/VV’는 강도가 기재된 사전에서는 중간(medium) 주석에 해당할 확률이 100%이며, 극성 사전에서는 부정적(NEG) 주석에 해당할 확률이 100%로 제시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주석에 해당할 확률이 100%인 형태소만을 한정하여 형태소별로 극성, 강도의 값을 매겼다.

이때 언어적 강도와 정서의 표현 빈도는 제외되는 기사 없이 모두 분석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서의 방향성을 계산한 뒤, 기사를 정서의 방향성(긍정)과 정서의 방향성(부정)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정서의 방향성이 0값을 갖는 기사(긍정을 나타내는 형태소 개수와 부정을 나타내는 형태소 개수가 동일한 기사)가 존재하여 정서적 방향성을 고려한 분석에서는 기사가 일부가 제외되었다. 다시 말해, ‘북한이(탈)주민’ 키워드로 수집한 기사 44,281개에서 정서의 방향성(긍정)인 기사는 36,735개이며 정서의 방향성(부정)인 기사는 6,342개이며, 정서의 방향성 값이 0으로 나타나 분류되지 않고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기사는 1,204개로 나타났다. ‘탈북민(자)’ 키워드로 수집한 기사 132,080개에서 정서의 방향성(긍정)인 기사는 99,904개이며 정서의 방향성(부정)인 기사는 28,123개이며, 정서의 방향성 값이 0으로 나타나 분류되지 않고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기사는 4,053개로 나타났다. ‘새터민’ 키워드로 수집한 기사 27,262개에서 정서의 방향성(긍정)인 기사는 23,400개이며 정서의 방향성(부정)인 기사는 3,233개이며, 정서의 방향성 값이 0으로 나타나 분류되지 않고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기사는 629개로 나타났다.

기사의 감성 분석과 관련된 <연구문제 1>을 위해 정부별로 기사의 언어적 강도, 정서적 표현 빈도, 정서의 방향성(긍정) 및 정서의 방향성(부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래프로 시각화한 후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산분석은 파이썬(python 3.8.3버전)의 statsmodels(0.12.0) 라이브러리를 통해 수행하였다. 정부는 본 연구의 뉴스 데이터가 월 단위로 수집된 관계로 정확한 취임일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없어, 해당 정부의 취임일이 한 달의 중위값이라 할 수 있는 15일보다 앞이면 해당 정권, 15일보다 뒤이면 그 전 정권으로 구분하였다. 분산분석에서 정부(김대중(1998년 1월~2002년 2월), 노무현(2002년 3월~2008년 2월), 이명박(2008년 3월~2013년 2월), 박근혜(2013년 2월~2017년 4월), 문재인(2017년 5월~2020년 12월)) 및 언론의 정치성향(진보, 보수)을 독립변인으로 고려하였으며 언어적 강도, 정서 표현 빈도, 정서의 방향성(긍정), 정서의 방향성(부정)을 종속변인으로 고려하였다.

(3) 데이터 분석: 언론 정치성향 차이에 따른 감성 분석

언론의 정치성향과 정부별로 기사의 감성 관련 변인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 2>를 위해 앞서 본문까지 수집한 기사 203,623개 중에서 정치성향을 파악한 언론사들의 기사를 별도로 추출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진보성향의 언론사로 경향신문, 주간경향, 오마이뉴스, 한겨레, 한겨레21을 선정하였으며, 보수성향의 언론사로 동아일보, 조선일보, 신동아, 중앙일보, 주간동아, 주간조선, 월간조선, 월간중앙, 중앙SUNDAY를 선정하였고, 언론별 정치성향에 따른 탈북민에 대한 보도 차이를 다룬 선행 연구들(곽정래·이준웅, 2009, 박종민 외, 2020, 유호열·박현선, 2011 등)을 참고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언론사를 기반으로 ‘북한이(탈)주민’ 키워드로 수집한 기사 44,281개 중에서 총 2,237개(진보로 분류된 기사 1,469개, 보수로 분류된 기사 768개)의 기사들을 추출하였다. ‘탈북민(자)’ 키워드로 수집한 기사 132,080개 중에서 총 13,990개(진보로 분류된 기사 6,363개, 보수로 분류된 기사 7,627개)의 기사들을 추출하였다. ‘새터민’ 키워드로 수집한 기사 27,262개 중에서 총 1,602개(진보로 분류된 기사 974개, 보수로 분류된 기사 628개)의 기사들이 추출되었다. 결과적으로 총 17,829개(진보로 분류된 기사 9,023개, 보수로 분류된 기사 8,806개)가 분석대상으로 추출되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자)’+‘새터민’의 경우, 키워드별로 수집한 기사들을 총합한 후 ‘뉴스제목’, ‘언론사’, ‘년도’, ‘월’, ‘뉴스일부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중복된 기사 16개를 제거하여 총 17,813개의 기사가 분석되었다.

이 기사들을 대상으로 언어적 강도, 정서적 표현 빈도, 정서의 방향성(긍정), 정서의 방향성(부정)을 계산하였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기사를 정서의 방향성(긍정)과 정서의 방향성(부정)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정서의 방향성이 0값을 갖는 기사 일부가 제외되었다. ‘북한이(탈)주민’ 키워드로 수집한 기사 2,237개에서 정서의 방향성(긍정)인 기사는 1,685개이며 정서의 방향성(부정)인 기사는 497개이며, 정서의 방향성 값이 0으로 나타나 분류되지 않고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기사는 55개로 나타났다. ‘탈북민(자)’ 키워드로 수집한 기사 13,990개에서 정서의 방향성(긍정)인 기사는 10,224개이며 정서의 방향성(부정)인 기사는 3,401개이며, 정서의 방향성 값이 0으로 나타나 분류되지 않고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기사는 365개로 나타났다. ‘새터민’ 키워드로 수집한 기사 1,602개에서 정서의 방향성(긍정)인 기사는 1,317개이며 정서의 방향성(부정)인 기사는 241개이며, 정서의 방향성 값이 0으로 나타나 분류되지 않고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기사는 44개로 나타났다.

Table 2. Number of articles to be analyzed for each keyword.

	North Korean refugee	North Korean defector	North Korean defector (positively refined)	Total	Duplicate articles of three keywords	N.K. refugee, +N.K. defector +N.K. defector(p)
The Kim	422	3,628	-	4,050	0	4,050
The Noh	1,255	14,223	1,455	16,933	0	16,933
The Lee	7,580	29,400	7,261	44,241	0	44,241
The Park	17,248	44,264	10,391	71,903	0	71,903
The Moon	17,776	40,565	8,155	66,496	265	66,231
Number of articles	44,281	132,080	27,262	203,623	265	203,358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2차 자료) 분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국민 인식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매해 1,300명 대상 실시된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데이터 중 2011년에서 2014년까지 4년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수용의향'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질문 문항과 설문지의 다른 속성들(인구학적 속성(성별, 나이, 교육, 소득), 개인 정치성향)과의 연관성이 분석되었다. 한국종합사회조사 데이터의 기술통계는 아래와 같다.

여성(0으로 코딩)이 2,722명, 남성(1로 코딩)이 2,464명으로 여성이 더 많았고, 연령은 40대가 22.6%로 가장 많았다.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 28.9%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 수준은 3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의 구간이 가장 많았다. 정치성향은 진보가 35.0%, 중도가 30.5%, 보수가 34.5%로 진보가 약간 더 많이 나타났다.

또한, <연구문제 3>과 관련된 한국종합사회조사 데이터에서 인구학적 속성과 개인 정치성향을 독립변인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수용의향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은 SPSS(23.0버전)을 이용하였다.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KGSS Data

		N	%
	Total	5,186	100.0%
year	2011	1,306	25.2 %
	2012	1,296	25.0 %
	2013	1,231	23.7 %
	2014	1,353	26.1 %
sex	male	2,464	47.5 %
	female	2,722	52.5 %
age	20-29	942	18.2 %
	30-39	958	18.5 %
	40-49	1,174	22.6 %
	50-59	892	17.2 %
	60-69	622	12.0 %
	above 70	598	11.5 %
education	no formal educated	201	3.9 %
	elementary school	494	9.5 %
	middle school	382	7.4 %
	high school	1,499	28.9 %
	junior college	655	12.6 %
	university	1,659	32.0 %
	graduate school master's course	240	4.6 %
	graduate school doctoral course	56	1.1 %
income	none	72	1.4 %
	under ₩500,000	335	6.5 %
	₩500,000 ~ ₩990,000	281	5.4 %
	₩1,000,000 ~ ₩1,490,000	301	5.8 %
	₩1,500,000 ~ ₩1,990,000	309	6.0 %
	₩2,000,000 ~ ₩2,490,000	417	8.0 %
	₩2,500,000 ~ ₩2,990,000	326	6.3 %
	₩3,000,000 ~ ₩3,490,000	530	10.2 %
	₩3,500,000 ~ ₩3,990,000	309	6.0 %
	₩4,000,000 ~ ₩4,490,000	458	8.8 %
	₩4,500,000 ~ ₩4,990,000	219	4.2 %
	₩5,000,000 ~ ₩5,490,000	421	8.1 %
	₩5,500,000 ~ ₩5,990,000	114	2.2 %
	₩6,000,000 ~ ₩6,490,000	238	4.6 %
	₩6,500,000 ~ ₩6,990,000	93	1.8 %
	₩7,000,000 ~ ₩7,490,000	150	2.9 %
	₩7,500,000 ~ ₩7,990,000	58	1.1 %
	₩8,000,000 ~ ₩8,490,000	131	2.5 %
	₩8,500,000 ~ ₩8,990,000	40	0.8 %
	₩9,000,000 ~ ₩9,490,000	49	0.9 %
	₩9,500,000 ~ ₩9,990,000	11	0.2 %
above ₩10,000,000	324	6.2 %	
ideology	liberal	1,813	35.0 %
	neutral	1,584	30.5 %
	conservative	1,789	34.5 %

4. 연구결과

1)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사들의 언어적 강도, 정서적 표현 빈도, 정서적 방향성 및 정권별 차이 검증

〈연구문제 1〉의 분석 결과에서 먼저 1998년 이후 정부별 ‘북한이(탈)주민’+‘탈북민(자)’+‘새터민’이 포함된 네이버 내 전체 기사의 언어적 강도(〈Figure 2〉)를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기간인 2002년(0.0993)에 가장 낮고,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비슷한 강도를 보이다가 박근혜 정부(특히 2014년 이후)에 들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다. 말하자면, 김대중 정부의 기사들은 표현과 태도가 비교적 모호하고 미온적이었던 한편, 박근혜 정부 들어 기사의 표현과 어조가 상대적으로 단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탈북민(자)’이 포함된 기사의 언어적 강도(〈Figure 3〉)도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정부별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적 강도(〈Figure 3〉)를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기간에 가장 높은 언어적 강도(1998년, 0.1218)와 함께 가장 낮은 언어적 강도(2001년, 0.1052) 및 가장 큰 표준편차(0.006638)를 보였으며 박근혜 정부 이후부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언어적 강도가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0.1181)에 가장 높았다. 다음, 정부별 ‘새터민’이 포함된 기사의 언어적 강도(〈Figure 3〉)는, 2005년 이후 증가세였다가 2014년(0.1111)에 급격히 낮아진 후 다시 상승세를 보여 2019년(0.1178)에 가장 높은 강도를 보이고 있었다. 〈Figure 3〉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언어적 강도는 ‘탈북민’이 가장 낮았다. 이는 ‘탈북민’이 포함된 기사들이 ‘북한이(탈)주민’이나 ‘새터민’이 포함된 기사에 비해 모호한 표현들이 주로 쓰였음을 말한다.



Figure 2. Language intensity frequency of news reports toward 'N.K.refugee+N.K.defector+N.K.defector(p)' by five governments from 1998 to 2020 (by year)



Figure 3. Language intensity frequency of news reports toward 'N.K.refugee', 'N.K.defector', 'N.K.defector(p)' by five governments from 1998 to 2020 (by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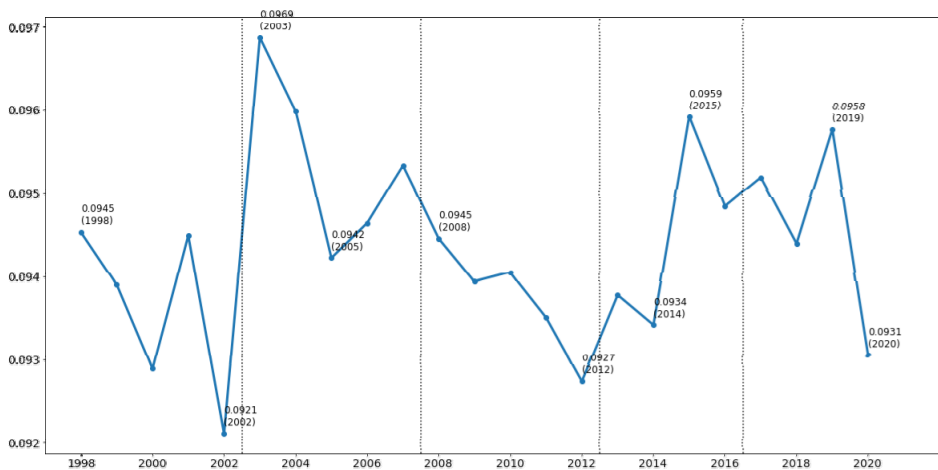


Figure 4. Emotional expression frequency of news reports toward 'N.K.refugee+N.K.defector+N.K.defector(p)' by five governments from 1998 to 2020 (by year)

1998년 이후 정부별 '북한이(탈)주민'+ '탈북민(자)'+'새터민'이 포함된 네이버 내 전체 기사의 정서 표현 빈도(Figure 4)를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 기간인 2002년(0.0921)에 가장 낮고, 노무현 정부인 2003년(0.0969)에 급격히 상승을 보인 후에 하강세를 보이던 박근혜 정부(2015년) 들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다. 다시 말해, 김대중 정부 기간에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사에서 감성적인 서술을 매우 자제한 반면, 노무현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감성적인

표현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역시 이러한 추세는 ‘탈북민(자)’가 포함된 기사의 정서 표현 빈도도 거의 유사하였다. 한편, 정부별 ‘북한이(탈)주민’의 정서 표현 빈도(Figure 5)는, 김대중 정부 기간이 2000년(0.0929)에 하강세를 보였다가 역시 노무현 정부시기인 2005년(0.0951)에 다시 한번 하강세를 보인 이후에는 급격한 변화는 없었고 최근 들어 다시 정서 표현이 많아지고 있었다. ‘탈북민’의 경우에는 2007년(0.0967)에 가장 높고 2014년(0.092)에 가장 낮은 정서 표현 빈도를 보이고 있었고 최근 들어 다시 정서 표현 빈도가 높아지고 있었다.

1998년 이후 정부별 ‘북한이(탈)주민’, ‘탈북민(자)’, ‘새터민’이 포함된 네이버 내 전체 기사의 정서 방향성(Figure 6)은 세부적으로 긍정 정서 방향성과 부정 정서 방향성의 평균값이 서로 반대로 가는 경향과 동시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예측되는 결과였으며, 자료 초창기인 2000년 이전의 큰 변화는 자료 수가 크지 않은 기간이여 평가가 어려웠고, 2000년 이후 약 20년 동안 특정 시기인 2007년, 2018년경 이외 급격한 변화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2008년 이후 북한이탈주민, 탈북민, 새터민의 부정적 정서성의 차이는 눈에 띄지 않으나, 탈북민에 대한 긍정적 정서성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를 통해 탈북민이라는 표현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5. Emotional expression frequency of news reports toward 'N.K.refugee', 'N.K.defector', 'N.K.defector(p)' by five governments from 1998 to 2020 (by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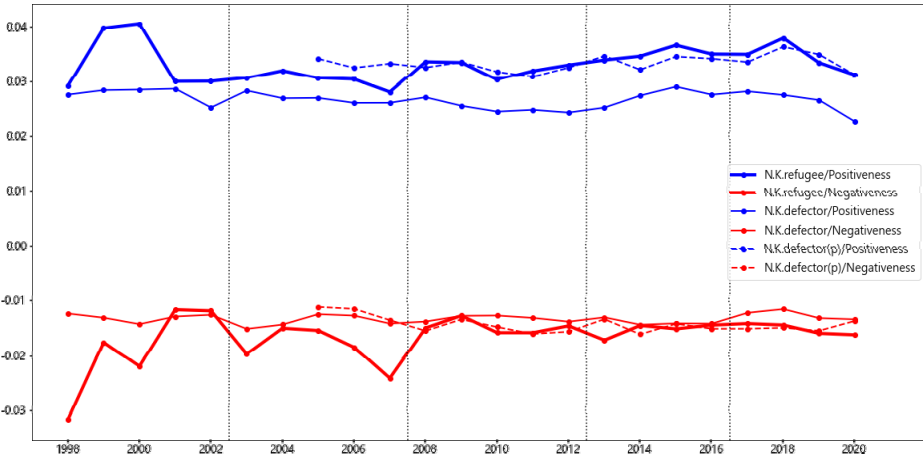


Figure 6. Emotional polarity directivity(positiveness/negativeness) frequency of news reports toward 'N.K.refugee', 'N.K.defector', 'N.K.defector(p)' by five governments from 1998 to 2020 (by year)

1998년 이후 정부별 ‘북한이(탈)주민’, ‘탈북민(자)’, ‘새터민’, ‘북한이(탈)주민+탈북민(자)+새터민’이 포함된 네이버 내 전체 기사의 언어적 강도, 정서 표현 빈도와 방향성이 정부별로 명확한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부별 기사의 개수와 기술통계량 및 분산분석의 결과는 부록 II-4의 <Table 4>와 같다. <Table 4>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된 기사, ‘탈북민(자)’이 포함된 기사, ‘새터민’이 포함된 기사들의 총 개수는 203,623개로 나타났다. 기사 중 정서의 방향성이 긍정적인 기사는 159,838개였으며, 부정인 기사는 37,642개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을 다룬 기사들이 대체로 긍정적인 톤과 표현들로 작성되었다.

키워드별로 수집한 기사를 단순 합산하여 정부별로 비교했을 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및 박근혜 정권 순으로 기사량이 많았다. 정부별 언어적 강도, 정서 표현 빈도, 정서적 방향성(긍정/부정)의 평균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매우 높은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언어적 강도의 F값(260.70)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 최근 정부(박근혜, 문재인)에 올수록 강해지는 특징이 있었다. 최근 정부 들어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사들의 톤과 표현이 보다 단정적이고 구체적임을 확인하였다. 정서 표현 빈도는 노무현(0.095), 문재인(0.095) 정부에서 높았고, 긍정적 방향성은 박근혜(0.03), 문재인(0.029) 정부에서 높았다.

‘탈북민(자)’이 포함된 기사는 총 132,080개로, 정서의 방향성이 긍정적인 기사는 99,904개였고 부정인 기사는 28,123개로 나타났다. ‘탈북민(자)’가 포함된 기사의 개수는 박근혜(44,264개), 문재인(40,565개), 이명박(29,400개), 노무현(14,223개) 및 김대중(3,628개) 정권 순으로 많았다. 정부별 언어적 강도, 정서적 표현 빈도, 정서적 방향성(긍정/부정)의 평균 차이는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전체 기사에서 언어적 강도는 김대중 및 이명박 정권과 나머지 정권(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간의 차이를 보였으나($F = 124.89$), 시간에 따른 경향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정서 표현 빈도는 노무현 정부(0.095)에서 높게 나타났다. 긍정 정서 방향성은 이명박 정부(0.025)에서 낮았으며, 부정 정서 방향성은 박근혜 정부(-0.014) 시기에 높았다.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된 기사는 총 44,281개로 나타났다. 기사 중 정서의 방향성이 긍정인 기사는 36,735개였으며, 부정인 기사는 6,342개로 나타났다. 역시 이명박과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된 전체 기사가 가장 많았고, 정서적 방향성(부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정부별 기사 내에 없었다. 정서 표현 빈도(0.099)는 문재인 정부에서 다른 정부보다 높았고, 박근혜(0.035), 문재인(0.034) 정부 등 최근에 올수록 ‘북한이(탈)주민’ 포함 기사 내에 긍정적 방향성이 높았다.

‘새터민’이 포함된 기사는 총 27,262개로 나타났다. 긍정적 방향성 기사는 23,400개, 부정인 기사는 3,233개로 나타났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빈도(10,391)가 높았다. 긍정적 방향성은 최근 정부(박근혜(0.034), 문재인(0.034))에 올수록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2)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사의 언어적 강도, 정서적 표현 빈도, 정서적 방향성의 정부별/언론 정치성향별 차이 검증

〈연구문제 2〉를 알아보기 위해 1998년 이후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하여 네이버 전체 기사를 수집하여 언론의 정치성향에 따른 보도경향의 언어적 정서성을 종단적으로 살펴보고 보수와 진보 언론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자)’+‘새터민’이 포함되면서 진보, 보수매체에서 작성한 기사를 대상으로 기사의 언어적 강도를 연도별로 시각화한 결과는 〈Figure 7〉과 같다. 언어적 강도의 경우 전체적으로 진보성향의 언론의 강도가 높았다. 다시 말해, 진보성향의 언론이 보수성향의 언론보다 단정적인 톤과 표현의 기사가 더 많았다. 이명박 정부기간에는 2009년에 진보(언어적 강도:0.10496)와 보수(언어적 강도:0.10477) 언론의 언어적 강도의 점수가 비슷해졌으며, 그리고 2012년에 보수성향의 언론의 언어 강도가 낮아지고, 박근혜 정부기간인 2015년에 다시 보수성향 언론의 언어 강도 점수(언어적 강도:0.107441)가 높아지면서 진보성향 언론의 강도의 점수(언어적 강도:0.107533)와 비슷해졌다. 각 용어별 보도경향의 언어적 강도를 살펴보면 ‘탈북민’ 기사의 언어적 강도는 전체적으로 진보언론의 강도가 컸지만, 2009년에만 보수언론의 강도가 진보언론보다 강도가 높았다(〈Figure 8〉). 2012년에 보수언론 강도가 하강하는 것이 특징적이었고, 2015, 2019년에는 진보와 보수 언론 모두 강도가 일시적으로 상승하였다. ‘북

한이(탈)주민'의 경우 '탈북민'에 비해 보수언론의 언어 강도가 진보에 비해 높은 시기가 많았다. 보수언론의 언어적 강도가 2003, 2005년에 급하강, 2009, 2013, 2015년에 일시적으로 급상승하였다. 전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은 보수언론에서 강하게 그리고 편차가 큰 언어적 강도를 보이고 있었다. '새터민'은 2017년 보수 언론에서의 언어 강도가 일시적으로 상승한 이외 전반적으로 진보언론의 언어적 강도가 지난 약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높았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보수언론의 강도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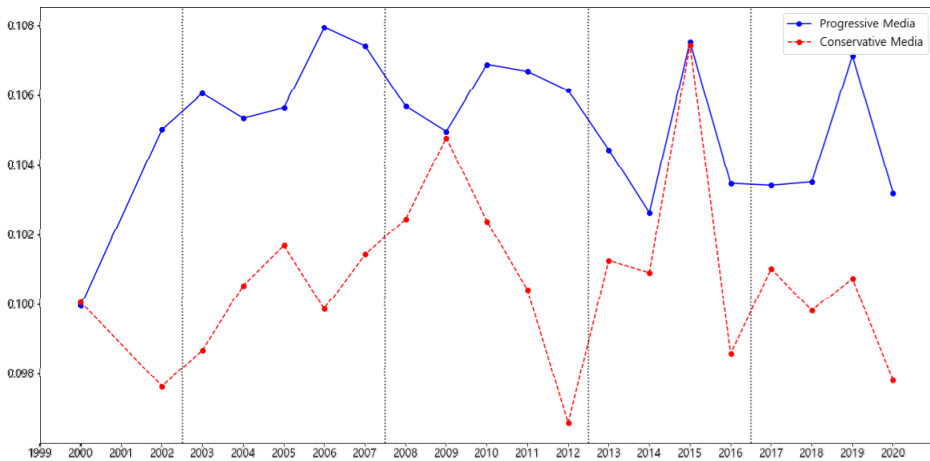


Figure 7. Language intensity of two partisan(progressive/conservative) media toward 'N.K.refugee+N.K.defector+N.K.defector(p)' by governments from 1998 to 2020 (by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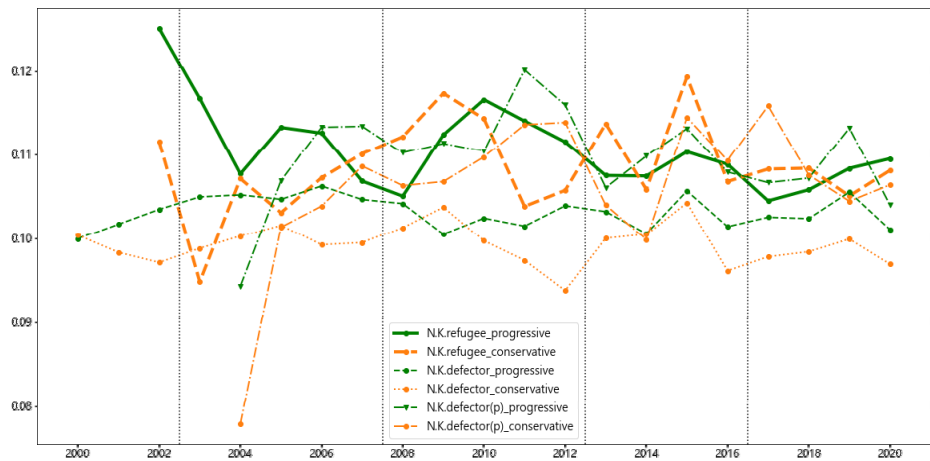


Figure 8. Language intensity of two partisan(progressive/conservative) media toward 'N.K.refugee', 'N.K.defector', 'N.K.defector(p)' by governments from 1998 to 2020 (by year)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자)’+‘새터민’이 포함된 정서 표현 빈도는 언어적 강도에 비해서 진보와 보수 언론 간 차이가 적었다(〈Figure 9〉). 2005년, 2009년, 2015~2017년에는 오히려 진보보다는 보수 언론에서 관련 기사의 정서 표현 빈도가 높았다. ‘탈북민(자)’도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Figure 10〉).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사는 노무현 정부 초기와 2019년 이후 그리고 중간에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이외 지난 약 15년간에 보수 언론에서 정서 표현 빈도가 더 높았다. 반면 ‘새터민’ 기사는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이외 지난 13년간 진보 언론에서 정서 표현 빈도가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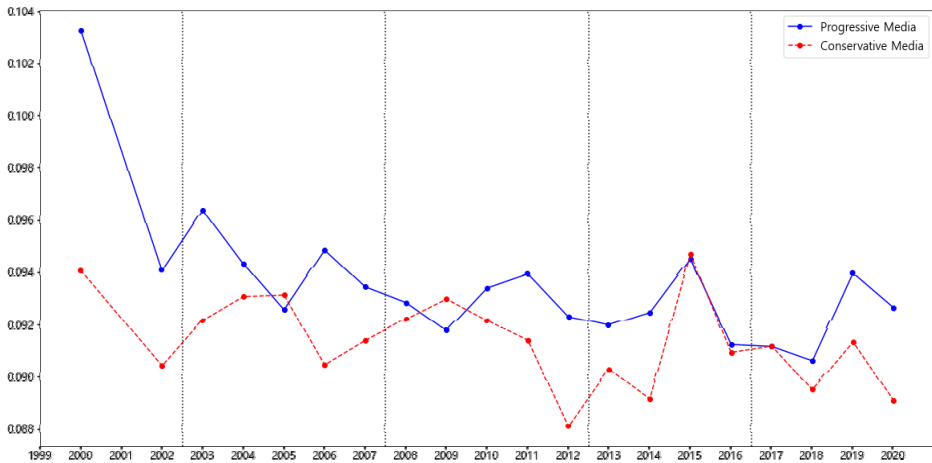


Figure 9. Emotional expression frequency of two partisan(progressive/conservative) media toward 'N.K.refugee+N.K.defector+N.K.defector(p)' by governments from 1998 to 2020 (by year)

‘북한이(탈)주민’+‘탈북민(자)’+‘새터민’ 전체 기사에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보수언론이 긍정 정서방향성이 높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진보언론이 더 긍정 방향성 값이 높았다(〈Figure 11〉). 부정 정서 방향성은 지난 20여 년간 뚜렷한 특징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았다. 이런 경향은 약간의 차이는 보였어도 ‘탈북민(자)’,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관련 기사 각각에서도 유사하였다(〈Figure 12〉 참조).



Figure 10 Emotional expression frequency of two partisan(progressive/conservative) media toward 'N.K.refugee', 'N.K.defector', 'N.K.defector(p)' by governments from 1998 to 2020 (by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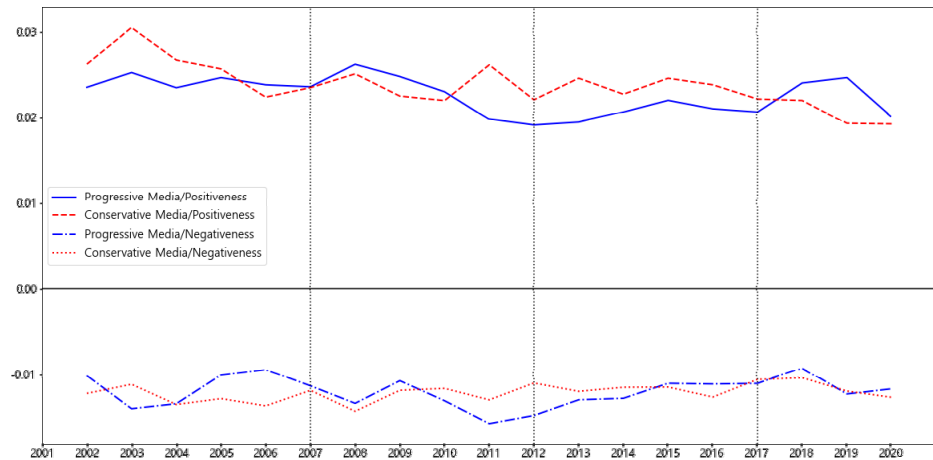


Figure 11. Emotional polarity directivity(positiveness/negativeness) frequency of two partisan media toward 'N.K.refugee+N.K.defector+N.K.defector(p)' by governments from 1998 to 2020 (by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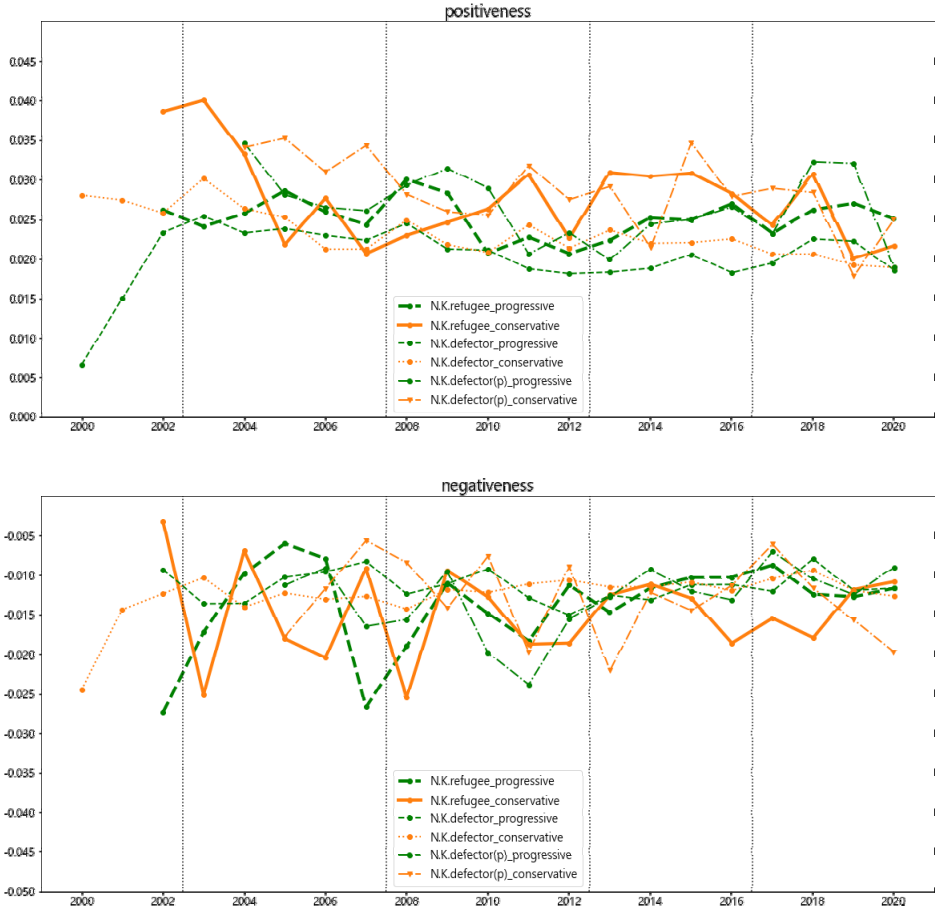


Figure 12. Emotional polarity directivity(positiveness/negativeness) frequency of two partisan media toward 'N.K.refugee', 'N.K.defector', 'N.K.defector(p)' by governments from 1998 to 2020 (by year)

1998년 이후 '북한이(탈)주민'+ '탈북민(자)'+ '새터민'이 포함된 정파적 언론(진보/보수)의 언어적 강도, 정서 표현 빈도, 정서의 방향성(긍·부정)의 정부별 차이(〈Table 5〉)를 본 결과, 언어적 강도, 정서 표현 빈도, 및 긍정 정서 방향성과 부정 정서 방향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였다.⁷⁾

차이점을 살펴보면, 모든 정부에서 진보언론이 보수언론에 비해 '북한이(탈)주민'+ '탈북민(자)'+ '새터민' 관련 기사의 언어적 강도($F = 15.53, p < .001$)와 정서 표현 빈도($F = 10.01,$

7) 북한이(탈)주민'+ '탈북민(자)'+ '새터민'이 포함되면서 진보 및 보수매체에서 작성한 기사는 총 17,813개로 나타났다. 이 기사 중 정서의 방향성이 긍정적인 기사는 13,215개였으며, 부정인 기사는 4,135개로 나타났다.

$p < .001$)가 높았다. 이는 정부와 상관없이 진보언론이 보수언론보다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사에서 상대적으로 단정적이고 감성적인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긍정 정서 방향성($F = 24.78, p < .001$)은 정반대로 보수언론이 진보언론에 비해 표현이 많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만 긍정적 방향성이 진보언론에서 높게 도출되었다. 다시 말해,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대체로 보수언론이 진보언론보다 기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보다 긍정적으로 다뤘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이러한 흐름이 바뀌었다. 이러한 결과는 '탈북민(자)'가 포함된 정파언론의 차이를 본 결과에서도 정확하게 일치하였다(부록 II-5의 <Table 6> 참조).

다음으로 1998년 이후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된 정파적 언론(진보/보수)의 언어적 강도, 정서 표현 빈도, 정서의 방향성(긍·부정)의 정부별 차이(부록 II-5의 <Table 6>)를 알아본 결과, 모두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다음으로 1998년 이후 '새터민'이 포함된 정파적 언론(진보/보수)의 언어적 강도, 정서 표현 빈도, 정서의 방향성(긍·부정)의 정부별 차이를 본 결과 언어적 강도($F = 4.16, p = .006$)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진보언론이 보수언론에 비해 언어적 강도가 높은 표현이 많았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만 반대로 '새터민' 관련 진보보다 보수언론이 높은 언어적 강도를 보였다.⁸⁾

8) '새터민'이 포함되면서 진보 및 보수매체에서 작성한 기사는 총 1,602개로 나타났다. 이 기사 중 정서의 방향성이 긍정적인 기사는 1,317개였으며, 부정인 기사는 241개로 나타났다.

Table 5. 'Descriptiveness and Results of ANOVA on Language Intensity, Emotional Frequency, Polarity Directivity of Two Partisan Media Reports toward 'N.K.refugee+N.K.defector+N.K.defector(p)' by Governments

		Language Intensity			Emotional Expression Frequency		Emotional Directivity_positive			Emotional Directivity_negative			
Number of article		17,813											
Administration	Media	N	M	S.D.	M	S.D.	n	M	S.D.	n	M	S.D.	
The Kim	con	522	0.10	0.022	0.09	0.020	409	0.027	0.016	85	-0.014	0.011	
	pro	142	0.11	0.023	0.09	0.021	98	0.023	0.018	42	-0.010	0.009	
The Noh	con	1,138	0.10	0.021	0.09	0.021	912	0.026	0.018	197	-0.013	0.010	
	pro	1,905	0.11	0.019	0.94	0.018	1,540	0.024	0.016	312	-0.012	0.010	
The Lee	con	2,371	0.10	0.021	0.09	0.018	1,817	0.023	0.017	493	-0.012	0.010	
	pro	2,093	0.11	0.020	0.93	0.018	1,504	0.022	0.016	538	-0.014	0.012	
The Park	con	2,002	0.10	0.020	0.09	0.019	1,543	0.024	0.017	406	-0.012	0.010	
	pro	2,711	0.10	0.019	0.92	0.018	1,847	0.021	0.015	799	-0.012	0.010	
The Moon	con	2,985	0.10	0.018	0.09	0.017	2,053	0.020	0.014	853	-0.012	0.010	
	pro	1,944	0.10	0.020	0.92	0.018	1,492	0.022	0.017	410	-0.011	0.009	
Total		17,813						13,215			4,135		
		<i>Source</i>		<i>DF</i>	<i>Sum sq</i>		<i>Mean sq</i>		<i>F</i>	<i>p</i>			
Language Intensity	Administration(A)		4	0.02	0.01	15.53	< .001						
	Media orient(B)		1	0.09	0.92	235.09	< .001						
	A x B		4	0.01	0.00	5.08	< .001						
	Residuals		17,803	6.99	0.00								
Emotional Expression Frequency	Administration		4	0.01	0.00	10.01	< .001						
	Media orient(B)		1	0.02	0.02	47.33	< .001						
	A x B		4	0.00	0.00	0.27	.90						
	Residuals		17,803	5.91	0.00								
		results after A x B interaction remove											
Emotional Directivity_pos	Administration		4	0.01	0.00	10.01	< .001						
	Media orient(B)		1	0.02	0.02	47.33	< .001						
	A x B		4	0.00	0.00	0.27	.90						
	Residuals		13,205	3.43	0.00								
Emotional Directivity_nega	Administration		4	0.00	0.00	2.84	.023						
	Media orient(B)		1	0.00	0.00	0.23	.063						
	A x B		4	0.00	0.00	4.32	.002						
	Residuals		4,125	0.43	0.00								

3) 시간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수용의도 대국민 인식 변화 분석

〈연구문제 3〉을 알아보고자 2011년에서 2014년까지 4년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에서 실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수용의향’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수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들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속성들(인구학적 속성(성별, 나이, 교육, 소득), 개인 정치성향, 조사연도, 정부별(이명박(2011~2012), 박근혜(2013~2014))을 포함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7〉 참조). 우선 성별(여성=0, 남성=1), 연령 등을 비롯한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더불어 정치 성향(매우 진보적=1 ~ 매우 보수적=5)을 통제변인으로 모델 1에 투입하였고, 이어서 이명박 정부를 0으로, 박근혜 정부를 1로 코딩하여 모델 2에 투입하였다.⁹⁾

먼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회귀 모델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9, p < .001$). 연령($\beta = .14, p < .001$)과 교육 수준($\beta = .07, p < .001$),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정치 성향은 진보적일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더욱 친근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7, p < .001$). 조사연도별로는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beta = -.04, p = .003$).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의향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회귀 모델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의향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6, p < .001$). 연령($\beta = .10, p < .001$)과 교육 수준($\beta = .15, p < .001$), 소득 수준($\beta = .08, p < .001$),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정치 성향은 진보적일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더욱 수용의향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6, p < .001$). 조사연도별로는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의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beta = -.05, p < .001$).

9) 분석에 포함된 총 응답자수는 5,186명이다.

Table 7.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Attitude toward 'North Korean refugee' from 2011 to 2014

	Closeness								Acceptance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Block 1																
	B	β	t	p	B	β	t	p	B	β	t	p	B	β	t	p
Sex	0.14	.09	6.71	<.001	0.14	.09	6.72	<.001	0.08	.06	4.33	<.001	0.08	.06	4.34	<.001
Age	0.01	.14	8.24	<.001	0.01	.14	8.29	<.001	0.00	.10	5.65	<.001	0.00	.10	5.71	<.001
Education	0.03	.07	3.55	<.001	0.03	.07	3.73	<.001	0.06	.15	7.99	<.001	0.06	.15	8.21	<.001
Income	0.00	-.01	-0.51	.608	-0.00	-.01	-0.42	0.606	0.01	.08	5.39	<.001	0.01	.09	5.51	<.001
Ideology	-0.05	-.07	-5.25	<.001	-0.05	-.07	-5.27	<.001	-0.04	-.06	-4.41	<.001	-0.04	-.06	-4.44	<.001
<i>R</i> ² (Adjusted <i>R</i> ²)	.027(.026)								.039(.038)							
<i>F</i> (<i>df</i> 1, <i>df</i> 2)	28.3***(5, 5180)								41.8***(5, 5180)							
Block 2																
					B	β	t	p					B	β	t	p
Year					-0.03	-.04	-2.95	.003					-0.03	-.05	-3.60	<.001
<i>R</i> ² (Adjusted <i>R</i> ²)					.028(.027)								.041(.040)			
ΔR^2					.001								.002			
Δ Adjusted <i>R</i> ²					.001								.002			
<i>F</i> (<i>df</i> 1, <i>df</i> 2)					25.1***(6, 5179)								37.1***(6, 5179)			

p* < .05, *p* < .01, ****p* < .001

5.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언론 보도와 국민 인식을 종단적, 종합적으로 진단하고자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1998년 이후 남북정책 기저가 달랐던 정부가 교차되는 동안 언론에 '북한이(탈)주민', '탈북민', '새터민'이 언급된 기사들의 언어적 강도, 정서 표현 빈도, 정서의 방향성을 분석하여 정부별, 정파적 언론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언론 속의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이들에 대한 대국민인식 변화를 파악하고자 분석 가능한 기간(2011~2014) 동안 북한이탈주민의 대국민 인식조사를 분석하였다.

먼저 호칭은 '탈북민(자)'(132,080개 기사), '북한이(탈)주민'(44,281개 기사), '새터민'(27,262개 기사)'의 순서로 사용되었다. 전반적으로 '탈북민(자)'이 가장 부정적으로 사용되었고¹⁰⁾, '새터민'은 공식적으로 2008년까지 사용되었고, 최근에는 '탈북민'보다 '북한이(탈)주민'의

10)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북한이(탈)주민'이 오히려 '탈북민'에 비해 편차가 크고 부정적으로 사용된 것처럼 보여 지는 것은 23년 전체자료분석 결과와 상이한 결과였다. '탈북민'의 최근에 올수록 부정적 의미가 강해진 것으로 파악된다.

표현이 더 긍정적인 표현이자 일반적인 호칭이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최유숙(2016)의 결과와 같았다.

‘북한이(탈)주민’+‘탈북민(자)’+‘새터민’과 ‘탈북민(자)’관련 기사의 언어적 강도는, 김대중 정부 기간인 2002년에 가장 낮고,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비슷한 강도를 보이다가 김정은 체제 출범시기인 2012년에 하강한 이후, 박근혜 정부인 2015년 이후 상승세를 보였다. 정서 표현 빈도도 유사하게 2002년에 가장 낮고, 노무현 정부인 2003년¹¹⁾에 상승을 보인 후 하강세를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 발언이 있었던 2014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적 강도는, 김대중 정부 기간에 최고와 최저의 편차가 가장 컸고, 김대중 정부 이후에는 정부별 차이보다는 특정 시기별로 강도의 차이가 있었고, 박근혜 정부 이후부터 증가하는 추세였고, 2018년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1998년부터 지속적인 북한의 대남도발¹²⁾에도 1차남북정상회담(2000) 등 화해협력 분위기로 인해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사의 언어적 강도와 정서 표현 빈도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2년 제2연평해전 이후 NPT 탈퇴, 1차 핵실험 등의 심각한 북한의 도발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유입이 계속 증가하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체 기사의 언어적 강도가 2010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도록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부록 II의 〈Table 8〉 참조).

언어적 강도에 나타난 언론 보도 흐름의 가장 큰 특징은 남북문제에 긍·부정의 큰 사건이 생기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사의 언어적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에 관심이 증가될수록 오히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은 낮아지는 ‘언론 내 북한과 북한이탈주민의 관심 대립 관점(북한 ↔ 북한이탈주민)’이 가정될 수 있는 발견이었다. 대북우호성향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탈북민 정책은 대북우호정책과 친탈북민 정책을 혼합하는 인도주의 차원의 조용한 정책(김일수, 2004)을 추진하였다. 대북우호성향의 진보정부에서도 북한과의 관계로 인해 내놓고 친탈북민 정책을 하기 쉽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국내언론의 북한이탈주민 보도는 한국정부의 대북우호성향과 관계없이 북한정부와 북한이탈주민 간의 근접적인 대립관계로 인해 북한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이 다소 양분되었을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는 결과였다. 또한 언론기사의 언어 형태소 및 감성어 분석의 특성상 전체기사 대비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사 비율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중요한 대북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북한

11) 2003.01.10. 북 핵확산방지조약(NPT)탈퇴

12) 1998. 6월 속초 무장공비 침투기도/ 7월 동해 무장공비사체 발견/ 11월 강화도 간첩선 침투/ 12월 여수해안 간첩선 침투, 1999.06.15. 제1연평해전, 2000. 1월 김동식 목사 납북사건, 2001. 철원/ 파주 DMZ 사고, 2002.06.29. 제2연평해전, 북경비정 NLL 침범, 여수 반잠수정 격침사건 등

이탈주민 관련 기사의 언어적 강도가 약해진다고 하여, 국내 언론이 대북관련 중요 시기에는 특별히 북한이탈주민에 관심이 낮아진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20여 년의 장기간 빅데이터 분석의 결과이기에 어느 정도 개연성을 추측해볼 수 있다고 판단되며, 추후 보강연구도 의미 있다고 하겠다.

더불어 정서 표현 빈도는 1차남북정상회담 평양 개최(2000.06.13.~15.)와 6.15남북공동선언이 있었던 2000년에 하강세를 보였다가 역시 노무현 정부시기인 개성공단건설과 북핵무기 보유 선언이 있던 2005년에 다시 한번 하강세를 보인 이후에는 급격한 변화는 없었고, 최근 들어 다시 정서 표현 빈도가 높아지고 있었다. 남북간 평화적 사건이 증가하는 긍정적 남북관계 시기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서 표현 빈도가 낮아지는 현상은 역시 '언론 내 북한과 북한이탈주민의 관심 대립 관점'으로 이해된다. 최근에 '탈북민(자)'보다 많이 사용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서 표현 빈도가 많아지는 증가 추세¹³⁾는 2012년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더 많은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과 종편채널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출연하는 상황¹⁴⁾에서 관련 기사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¹⁵⁾하였는데, 해당 기사들에서 상대적으로 정서적인 표현들이 빈번히 사용된 것도 관계가 있다고 가정된다.

1998년 이후 정부별 '북한이(탈)주민', '탈북민(자)', '새터민'이 포함된 네이버 내 전체 기사의 정서 방향성은 긍정 정서 방향성과 부정 정서 방향성의 평균값이 서로 역으로 흐르는 흐름과 동시에 감소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었다. 약 20년 동안 특정 시기인 2007년, 2018년경 이외 급격한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지는 않았다. 남북정상선언이 있었던 2007년과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이 있었던 2018년에 긍·부정 정서 방향성 기사가 모두 하강을 보인 현상은 역시 '국내 언론 내 북한과 북한이탈주민의 관심 대립 관점'의 현상이라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명박과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사수가 가장 많았고, 언어적 강도는 최근 정부(박근혜, 문재인)에 올수록 강해지는 특징이 있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탈북민(자)+' '새터민'와 '탈북민(자)' 관련 기사의 정서 표현 빈도는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서 표현 빈도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높았고, 긍정과 부정 정서 방향성 모두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13) '새터민' 관련 기사 역시 언어적 강도는, 2005년 이후 증가세였다가 2014년에 낮아진 후 다시 상승세를 보여 2019년에 가장 높은 강도를 보이고 있었고, 정서 표현 빈도는 2007년에 가장 높고 2014년에 가장 낮은 정서 표현 빈도를 보이다 최근 들어 다시 높아지고 있었다.

14) 대표적인 북한이탈주민 출연 방송프로그램은 종편 개국과 함께 방영을 시작한 채널A의 <이제 만나러 갑니다(2011~현재)> 외에도 TV조선의 <모란봉클럽(2015~현재)>과 <애정통일 남남북녀(2014~2017)> 등이 있다.

15) 2001년 이전 기사수 1,000건 이하/ 2002년 2,500건 이상/ 2011년 7,500건 이상/ 2012년 이후 2만 건 이상

높았다. 더불어 전체 기사의 긍정 정서 방향성은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낮고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높았으며, 부정 정서 방향성은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느 정도 정부가 가지는 대북우호성향과 흐름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고 있는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사의 정서 표현 빈도도 높아졌다.

또한 이는 언론의 정서적 방향성이 남북관계 주요 사건들의 출현 시기가 아닌 남한 정부의 대북우호성향에 따라 작동하고, 또 하나는 ‘언론 내 북한과 북한이탈주민의 관심 대립 관점(북한 ↔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한 대북우호정서 관점(북한 ⊃ 북한이탈주민)’이 작동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두 가지 언론 관점이 발견되는 원인 중 하나는 대북우호성향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탈북민 정책은 남북한 관계를 고려하여 ‘조용한 외교, 비공개 교섭, 대북화해협력 우선정책 등의 대북우호우선정책’과 ‘전원수용, 인도주의, 인권 차원의 친탈북민 정책’을 혼합적으로 사용한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김일수, 2004). 공·부정 정서 방향성이 동시에 높은 박근혜 정부는 당시 혼란스러운 남북간 관계성이 원인으로 예측된다. 이는 남북한 관계가 급변하는 시기(김대중, 노무현, 박근혜정부 등)에 정서 표현 빈도의 편차가 커지는 결과에서도 유사성이 나타났다. 한편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기간은 2005년에서 2008년까지에 불과하였고, 그 이후 이명박 정부를 거쳐 조금씩 기사수가 증가하다가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새터민’ 기사수가 정점에 달하고 최근 2019년 이후 기사에서 사용빈도가 낮아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진보와 보수 매체 성향에 따른 세 단어 관련 기사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북한이(탈)주민’+‘탈북민(자)’+‘새터민’, ‘탈북민’ 관련 기사의 언어적 강도는 전체적으로 진보성향 언론의 강도가 높았다. 이명박 정부기간인 2009년에는 진보(언어적 강도:0.10496)와 보수 언론(언어적 강도:0.10477)의 언어적 강도의 점수가 다른 시기와 다르게 비슷하였다. 이는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사건을 시작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2009년에 들어서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대청해전 등이 발발하면서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되어 북한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내언론 보도의 언어적 강도가 정치성향과 무관하게 동질성을 나타낸 것으로 가정된다. 이후 김정은 체제 출범 해인 2012년부터 보수성향의 언론의 언어 강도가 하강하였다가 박근혜 정부기간인 2015년¹⁶⁾에 다시 보수성향 언론의 언어적 강도가 상승하면서 두 언

16) 2015.11. UN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에서 북한이탈주민 인권권고, 2015.08.04.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 2015.08.20. 서부전선 포격사건 등이 있었음.

론의 강도가 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사들의 언어적 강도는 보수언론의 경우 2003, 2005년¹⁷⁾에 하강하고 역시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되었던 2009년, 주요 사건 발생한 2013년¹⁸⁾과, 2015년에 일시적으로 상승하였다. 전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자)’+‘새터민’ 기사들은 보수언론들은 진보언론보다 강도가 낮은 추세였다가, 큰 쟁점이 발생하는 시기(2009, 2015년)에는 보수언론의 강도가 높아져 진보언론과 유사해지는 패턴이 발견되었다. 또 다른 특징은 보수언론이 ‘북한이(탈)주민’보다 ‘탈북민’을 더 많이 사용하였지만 ‘탈북민’보다 ‘북한이(탈)주민’ 기사에서 강도가 높았고 편차가 컸으며, 이는 ‘북한이(탈)주민’ 기사에서 더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정서적 표현 빈도는 언어적 강도에 비해 진보와 보수 언론간 차이가 적었고, ‘북한이(탈)주민’에서는 오히려 보수 언론의 정서 표현 빈도가 높았고, 더 나아가 긍정적 정서 방향성은 문재인 정부 이외 모든 정부에서 보수언론의 긍정적 방향성이 진보언론보다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언급된 ‘북한과 북한이탈주민의 관심 대립 관점(북한 ↔ 북한이탈주민)’으로 인해 반북 성향의 보수언론이 오히려 더 친(親)북한이탈주민 보도경향이 있었음을 시사해준다. 더불어 이러한 결과는 언론들이 대북문제와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정파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하는 이전 연구들과는 사뭇 다른 결과였지만, ‘북한’과 ‘통일’ 관련 정서적 표현 빈도와 긍정 정서 방향성이 보수언론에서 높았던 이전 연구 결과(박종민 외, 2020)와는 유사성을 보였다. 더불어 보수신문은 탈북자의 인권, 생존권, 보편적 인도주의에 근거한 정부의 탈북자 정책을 강조하였고, 진보신문은 남북관계 전반(북핵 위기와 남북경협 등)과 주변 정세를 고려한 탈북자 정책을 강조하였다는곽정래·이준웅(2009)의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북한’과 ‘통일’을 넘어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사들도 보수언론의 긍정성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 언론이 정치성향을 떠나 대북 문제에 있어 부정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새터민’ 기사의 언어적 강도는 판문점 귀순 북한군 총격 사건(2017.11.13.)이 있었던 2017년에 보수 언론에서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 외에는 전반적으로 진보언론에서 지난 약 20년간 높았고, 문재인 정부에서만 보수언론의 강도가 더 높았다. 한편 ‘새터민’의 정서적 표현 빈도는 전체적으로 진보언론에서 높았다. 전체적 정서적 표현 빈도가 진보언론에서 높은 원인은 ‘새터민’이라는 용어가 진보 성향의 노무현 정부 기간인 2005년 통일부에서 공식적으로 권장하여 시작된 표현이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되었다.

17) 2003.01.10. 북 핵확산방지조약(NPT)탈퇴, 2005년에 개성공단 건설과 2005.02.10. 핵무기 보유 선언이 있었음.

18) 2013.01. 탈북 화교 공무원 간첩 사건 발생

또한, 본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과 교육수준,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보수보다는 진보성향이, 박근혜 정부보다 이명박 정부 기간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의향이 높았고, 소득수준 영향력은 수용의향이 아닌 친근감에서는 제외되었다. 이는 정서적인 친근감과 달리 수용의향은 수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고려되어 평가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본 결과는 탈북민에 대해 대국민 친근감, 사회적 거리, 수용도 등이 지난 10년 동안 점점 부정적으로 변화(통일평화연구원, 2020)된다는 이전 연구와는 동일하였고,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영향력이 작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탈북자 수용에 부정적이라는 이전 결과(손애리·이내영, 2012)와는 다소 다른 것이었다. 이는 두 연구 결과 해석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두 연구의 진행된 시기의 차이를 고려할 때, 2010년대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수용에 대한 사회적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더불어 본 결과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언론 보도가 '북한'과 '통일'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가까울수록 더 긍정적이라는 이전 결과와 유사한 흐름(박종민 외, 2020)이 발견되었고 동시에 북한과 통일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국민 정서가 최근에 가까울수록 부정적(박종민 외, 2020; 통일평화연구원, 2020)이라는 동일 흐름도 발견되었다. 즉, 최근 들어 북한, 통일, 북한이탈주민을 다루는 언론 보도와 국민의 정서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언론이 국가가 가야 할 당위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반면, 국민들은 생활과 현실 속에서 통일과 북한이탈주민을 보는 입장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부터 본 연구가 가지는 몇 가지 한계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연구 자료를 월별로 수집하였지만, 23년간의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설명은 연(年) 단위로 진행되어 특정시기의 특정 이슈와 관련하여 분석결과를 설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의 세 가지 주요 변수인 언어적 강도, 정서 표현 빈도, 정서 방향성의 부분적 결과들이 다소 논리적 상이성이 존재하여 부분적 설명에 혼선이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 추후 이런 문제가 보완된 추가적 빅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더불어 연구 방법에서 언급된 정부 구분의 불명확성과 정부의 정치적 이념 성향에 따른 본 연구 결과의 심층적인 해석이 부족한 것 역시 아쉬운 점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미디어의제와 공중의제의 방향성이 과연 다르게 가고 있는가는 향후 이론적 검증의 필요성도 있다. 미디어의제와 공중의제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노력은 과거 의제설정 연구의 흐름을 통해 파악 가능하다. 초기 의제설정 연구(McCombs & Shaw, 1972; Shaw & McCombs, 1977) 이후 세부 추가변수들¹⁹⁾을 포함한 연구가 진행

19) 의제설정 효과는 외적 조건들(관련성(relevance)과 불확실성(uncertainty))의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는 '정향욕

중이며 나아가 1990년대 '특정 세부속성을 미디어가 현지화하면 이것이 수용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2차 의제설정' 혹은 '속성 의제설정' 가설이 제시된 후 기업 명성, 지구 온난화, 부동산 이슈, 대통령선거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속성의제설정의 부차적 효과, 속성의제의 점화효과, 속성의제와 프레임의 융합 등 다양한 2차 의제설정 효과들이 검증되었다(이건호, 2006; 이나연, 2016; 차희원, 2004; 최원석·반 현, 2006).

북한이탈주민 관련 이전 의제설정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다른 이념성향 언론(조선일보와 한겨레)의 북한이탈주민 보도의 의미 구조 차이(권호천, 2017)는 발견되지 못했지만, 신문과 SNS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정착지원, 다문화 가정 등의 공통 이슈들이 논의되면서 미디어 네트워크의 구조적 관계와 수용자들에 대한 의제설정 가능성을 확인한 연구(김대욱, 2020)와 KBS뉴스가 인터넷뉴스의 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친 결과(김병철, 2020)도 있었다.²⁰⁾ 본 연구는 연구 기획 초기에 속성의제설정이론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 '탈북민(자)',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탈북민(자)'+'새터민'이 포함된 언론기사의 정서적 방향성(긍정/부정)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친근감과 수용의향 간 상관관계를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공중의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2차 자료의 조사기간(2011~2014년)과 본 연구에서 분석한 뉴스 수집기간(1998~2020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론을 검증하기는 어려웠다. 분석 자료가 가지는 한계로 인한 이론 적용과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이다. 이러한 한계점은 다른 <연구문제 1, 2>와 <연구문제 3>과의 논리적 연계가 부족해지는 문제점에도 동시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친근감과 수용의향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 2011년에서 2014년 사이에 '북한이(탈)주민', '탈북민(자)',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탈북민(자)'+'새터민'이 포함된 기사의 정서의 방향성(긍정/부정)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수용의향 정도를 비교해보면, '북한이(탈)주민' 관련 언론보도는 최근에 올수록 긍정으로 분류된 기사들의 평균적

구(need for orientation)'라는 개념도 제시되었다(Weaver, 1980; McCombs & Weaver, 1985). 관련성과 불확실성 외에 정보추구 성향(Weaver, 1980), 이슈, 사실, 저널리즘적 판단 등에 관한 정향욕구(Matthes, 2006), 인구사회학적 변인들(Hill, 1985), 개인의 심리학적 요인들과 공중의 행동적 측면(Wanta, 1997), 미디어 보도의 균형감(Kiousis, 2004) 등 의제설정 효과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다양한 원인을 밝히려는 연구들이 이어졌다(반 현·백컴스, 2007).

20) 김병철(2020)의 연구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 KBS와 Daum이 제공하는 200여 언론의 뉴스를 대상으로 탈북자, 새터민, 귀순자, 북한이탈주민, 탈북민 등의 용어 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KBS 뉴스의 '탈북자' 용어 사용이 다음 블로그와 카페의 '탈북자' 용어 사용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KBS 뉴스 보도가 수용자의 인터넷상의 언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 정서적 방향성 점수가 이전보다 증가하였고, 부정으로 분류된 기사들의 평균 정서적 방향성 점수는 일정하였다. 이와 다르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들의 친근감과 수용의도는 오히려 부정적이었다(부록 II-3의 <Table 9> 참조). 이는 분석 기간동안은 적어도 북한이탈주민 관련 언론 의제가 국민 의제와 크게 관련이 없었음을 가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관련 언론과 국민의 의제적 관련성에 관한 학술적 논의를 위해서는 추가 자료 확보를 통한 이론 검증이 필요하다. 더불어 만약 우리 사회에 북한이탈주민 관련 미디어의제와 공중의제의 차이점이 존재한다면, 그 원인 진단과 대책 모색이 역시 필요하다. 이는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제이기 때문이다.

References

- Bowers, J.W. (1963). Language intensity, social introversion, and attitude change. *Speech Monographs*, 30(4), 345-352, DOI: 10.1080/03637756309375380
- Bradac, J.J., Bowers, J.W., & Courtright, J.A. (1979). Three language variables in communication research: intensity, immediacy, and diversity.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5, 257-269.
- Ban, H., & McCombs, M. E. (2007). Revisiting agenda-setting theory: a five-phases evolution model. *Communication Theories*, 3(2), 7-53.
- Cha, H. W. (2004). Agenda-setting effects of mass media on corporate reputations by public involvement and media credibility.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8(6), 274-303.
- Choi, J. H., & Ha, J. H. (2016). News frames of Korean unification issues: comparing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newspaper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24(2), 127-151.
- Choi, S. H. (2010). Social integration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based on Germany's example. *Th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Communication*, 13(1), 161-190.
- Choi, W. S., & Ban, H. (2006). The study of agenda-setting effect model on the public opinion and behavior : coverage of bubble real estate prices and government policie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0(1), 406-435.
- Choi, Y. S. (2016). Reference terms for North Korean defectors seen in newspaper articles. *The Journal of Language & Literature*, 67, 33-66.
- Choi, Y. H., & Kim, S. Y. (2013). "South Korea embraced Us, but South Koreans have never accepted North Korean defectors". - an analysis of the comments posted on major internet portal sites concerning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role of public relations in communicating unification.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15(3), 187-219.
- Chung, J. S. (2003).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Korea and the government's tasks. *Unification Strategy*, 3(2), 97-120.
- Hamilton, M. A.(1998). Message variables that mediate and moderate the effect of equivocal language on source credibility.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17(1), <https://doi.org/10.1177/0261927X980171006>.
- Hamilton, M. A., & Stewart, B. L.(1993) Extending an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of language intensity effects. *Communication Quarterly*, 41(2), 231-246, DOI: 10.1080/01463379309369882.

- Hill, D. B. (1985). Viewer characteristics and agenda-setting by television news. *Public Opinion Quarterly*, 49, 340-350.
- Kwak, J. R., & Rhee, J. W. (2009). News media framing of the issue of North Korea defectors during the Kim Dae-joong and Roh Moo-hyun governments : comparing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news media.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3(6), 196-217.
- Kwon, H. C. (2017). Comparing the difference of newspaper reporting structure on North Korean defectors during the Park Geun-Hye government : analyzing the text network of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newspaper coverages. *Journal of Social Science*, 29(2), 100-139.
- Kim, B. C. (2020). The influence of media reports of the term 'North Korean defectors' on audience's language.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20(4), 5-41.
- Kim, C. H. (2009). Conflicts in South Korea over North Korea and the US.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1(2), 140-161.
- Kim, D. W. (2020). Exploring public issue management using network agenda-setting model comparing discourses about North Korean defectors between newspapers and social network sites. *Journal of Public Relations*, 24(3), 23-54.
- Kim, D. W. (2021). A study on the perception-building process of South Korean people about the residents escaping North Korea : semantic network analysis for media reports and audiences' perceptions. *Journal of Public Relations*, 25(1), 185-207.
- Kim, I. H., Lee, D. G., & Kang, J. W. (2017). Sketching North Korea : the representations of North Korea based on newspaper bigData, 'Trends 21'. *Review of North Korean Studies*, 20(2), 7-37.
- Kim, I. S. (2004). South Korean government's defector policy: problems and prospects. *The Korean Journal of Area Studies*, 22(2), 239-357.
- Kim, M. H., Jang, H. Y., Jo, Y. .M., & Shin, H. P. (2013). KOSAC: Korean Sentiment Analysis Corpus. *Journal of Information Scientists and Engineers*, 160, 650-652.
- Kim, M. J., & Lim, J. S. (2015). The media appearance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change in the flow of 'North Korean information' - from 'control' to 'competition'. *Social Science Studies*, 23(2), 55-87.
- Kim, S. O. (2009). *A study on media reporting trends for North Korean defectors: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types and contents of newspaper artic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Seoul, Korea.
- Kim, S. Y. (2009). A Study on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supporting policies.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50, 231-252.

- Kiousis, S. (2004). Explicating media salience: A factor analysis of New York Times issue coverage during the 2000 presidential elec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54, 71-87.
- Lee, C. H., Kim, K. I., & Park, J. M. (2010). Preliminary analysis of language styl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broadcastings. *Journal of the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1(9), 3311-3317.
- Lee, G. H. (2006). Agenda setting and priming effects of online media : experiment on online media's role of salience transfer and evaluative dimension building.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0(3), 367-392.
- Lee, H. H., Lee, J. K., Choi, J. H., Cheong, S. H., & Kang, K. S. (2015). How does the Korean press see the Korean unification? : focusing on the content analysis of news coverage about Korean unification by each regime, type of media, and press.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9(2), 220-259.
- Lee, J. S. (2018). Settlement support policy of North Korean defectors: from protection to self-supporting. *Unification Strategy*, 18(4), 151-183.
- Lee, N. Y. (2016). Attitudes toward presidential candidates and attribute agenda-setting effects in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in South Korea : based on an experiment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0(5), 63-90.
- Lee, Y. C. (2006). *A Study of the News Framing on the Issues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Focusing on the Frames and its Chang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Korea.
- Lim, J. S., & Kim, M. J. (2015). Review of grounded theory method and its implications for journalism studies : an analysis of feature stories about North Korean defectors in conservative and liberal newspaper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9(2), 427-452.
- Matthes, J. (2006). The need for orientation towards news media: revising and validating a classic concept.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8, 422-444.
- McCombs, M. E., & Shaw, D. L. (1972). The agenda-setting function of mass media. *Public Opinion Quarterly*, 36, 176-187.
- McCombs, M. E., & Weaver, D. H. (1985). Toward a merger of gratifications and agenda setting research. In K. E. Rosengren, L. A. Wenner, & P. Palmgreen (Eds.), *Media gratifications research* (pp. 95-108). Beverly Hills, CA: Sage.

- Ministry of Unification. (2019). *2019 Practice handbook of North Korean defectors' settlement support*. Seoul: Ministry of Unification.
- Ministry of Unification. (2020). *North Korean defectors' policy-settlement support system*. Retrieved 1/26/21 from www.unikorea.go.kr.
- No, G. S. (2020). A Study on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social integration of South & North Korea. *Journal of Boarder Region Unification Studies*, 4(1), 177-201.
- Park, J., Jung, Y. J., Joo, H. J., & Kim, H. W. (2020). How has the Republic of Korea viewed 'North Korea' and 'Reunification' over the past 20 years? - sentiment words analysis of media articles and longitudinal study of public opini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4(6), 161-201.
- Park, J., & Lee, C. H. (2011). Differences of language styles in South and North Korea's broadcasting drama analyzed by K(Korean)-LIWC. *Broadcasting & Communication*, 12(3), 5-30.
- Shin, H. S., Kim, C. H., & Wang, Y. M. (2016). North Korean residents, North Korean defectors and North Korean refugees : recoding the North Korean refugees by decoding the experience sharing cohorts with temporalities and spatialities. *The Journal of the Humanities for Unification*, 67, 41-80.
- Shin, H. P., Kim, M. H., & Park, S. Z. (2016). Modality-based sentiment analysis through the utilization of the Korean sentiment analysis corpus. *Journal of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74, 93-114.
- Shaw, D. L., & McCombs, M. E. (1977). *The emergence of American political issue*. St. Paul, MN: West.
- Sohn, A. L., & Lee, N. Y. (2012). A study on the attitude of South Koreans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focusing on national identity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19(3), 5-34.
-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2020). *2019 Unification Perception Survey*.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 Wanta, W. (1997). *The public and the national agenda: How people learn about important issues*, Mahwah, N.J.: Lawrence Erlbaum.
- Weaver, D. H. (1980). Audience need for orientation and media effects. *Communication Research*, 7, 361-376.
- Wilson, T. A. (2008). *Fine-grained subjectivity and sentiment analysis: Recognizing the intensity, polarity, and attitudes of private stat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 Yoo, H. Y., & Park, H. S. (2011). *The Programs of Reporting North Korean Refugees Issues in Korean Press*

and Recommendation for Improvement. Seoul: North Korean Refugee Foundation.

최초 투고일 2021년 10월 07일

게재 확정일 2022년 01월 14일

논문 수정일 2022년 02월 05일

부록 I. 국문참고문헌

- 곽정래·이준웅 (2009).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 탈북자 문제에 관한 언론의 프레임 유형 연구-조선일보, 한겨레 등 5대 일간지 사설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3권 6호, 196-217.
- 권호찬 (2017). 박근혜 정부시기 탈북민 관련 신문보도의 의미구조 차이 비교 분석: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기사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9권 2호, 100-139.
- 김대욱 (2020). 네트워크 의제설정모델을 적용한 공공이슈 관리 탐색. <홍보학연구>, 24권 3호, 23-54.
- 김대욱 (202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인식 형성 과정 연구:미디어 보도와 수용자 인식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홍보학연구>, 25권 1호, 185-207.
- 김명준·임종섭 (2015). 탈북자의 미디어 등장과 '북한정보' 흐름의 변화-통제'에서 '경쟁'으로. <사회과학연구>, 23권 2호, 55-87.
- 김문형·장하연·조유미·신희필(2013). KOSAC(Korean Sentiment Analysis Corpus): 한국어 감정 및 의견 분석 코퍼스.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60권, 650-652.
- 김병철 (2020). 언론 보도의 '북한이탈주민' 지칭어가 수용자의 언어에 미치는 영향. <언론과학연구>, 20권 4호, 5-41.
- 김성욱 (2009).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언론의 보도 경향 연구 : 신문기사의 유형 및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성운 (2009). 새터민 정착과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50권, 231-252.
- 김일수 (2004).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대응. <세계지역연구논총>, 22권 2호, 239-357.
- 김일환·이도길·강진웅(2017). 북한스캐치: 2000년대 신문 빅데이터에 표상된 북한의 모습. <현대북한연구>, 20권 2호, 7-37.
- 김재한 (2009). 북한 및 미국 관련 남남갈등의 변화추세: 조선일보 및 한겨레신문 사설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1권 2호, 140-161.
- 노길수 (2020). 북한이탈주민정착과 남북한 사회통합 연구. <접경지역통일연구>, 4권 1호, 177-201.
- 박종민·이창환 (2011). 한국어 분석 프로그램(KLIWC)을 이용한 남북한 방송극의 언어문화 구조 차이 분석.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2권 3호, 5-30.
- 박종민·정영주·주호준·김현우 (2020). 대한민국은 지난 20년간 '북한'과 '통일'을 어떻게 보았는가? 언론 보도 빅데이터 분석 및 국민 인식 중단연구. <한국언론학보>, 64권 6호, 161-201.
- 반 현·McCombs (2007). 의제설정이론의 재고찰: 5단계 진화 모델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

- 론), 3권 2호, 7-53.
- 손애리·이내영 (2012). 탈북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연구: 국가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을 중심으로. <아태연구>, 19권 3호, 5-34.
- 신효숙·김창환·왕영민 (2016). 북한주민, 탈북자, 북한이탈주민 : 시공간적 경험 공유 집단 분석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속성 재해석. <통일인문학>, 67권, 41-80.
- 신효필·김문형·박수지 (2016). 한국어 감정분석 코퍼스를 활용한 양상정보 기반의 감정분석 연구. <언어학>, 74권, 93-114.
- 유호열·박현선 (201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언론의 보도 태도>. 서울: 남북하나재단.
- 이건호 (2006). 디지털 시대 의제 설정 효과로서의 점화 이론: 인터넷 매체가 수용자의 인식과 가치 판단 설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언론학보>, 50권 3호, 367-392.
- 이나연 (2016). 정치인에 대한 사전태도가 속성 의제설정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대학생 유권자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0권 5호, 63-90.
- 이용철 (2006). <탈북자에 대한 언론의 프레임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진석 (2018). 탈북이주민 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보호에서 자립 자활으로. <통일전략>, 18권 4호, 151-183.
- 이창환·김경일·박종민 (2010). 남북한 방송언어의 차이에 대한 기초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1권 9호, 3311-3317.
- 이화행·이정기·최진호·정성호·강경수 (2015). 한국언론은 통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정권, 미디어 유형, 개별 언론사별 통일보도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9권 2호, 220-259.
- 임종섭·김명준 (2015). 근거이론방법의 고찰과 언론학 연구에 주는 함의-보수신문과 진보신문의 탈북자 기획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9권 2호, 427-452.
- 정주신 (2003). 국내의 탈북자 실태와 정부의 과제. <통일전략>, 3권 2호, 97-120.
- 차희원 (2004). 공중 관여도와 미디어 신뢰도에 따른 기업 명성의 미디어 의제 설정 효과 연구. <한국언론학보>, 48권 6호, 274-303.
- 최승호 (2010). 북한 새터민에 대한 사회통합 방안. <정치정보연구>, 13권 1호, 161-190.
- 최원석·반 현 (2006). 공중 의견과 행동에 대한 의제설정 효과 모형의 검증: 부동산 이슈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권 1호, 406-435.
- 최유숙 (2016). 신문기사에 나타난 북한이탈주민 지칭어 분석: 지칭어와 관련어의 공기어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67권, 33-66.
- 최윤형·김수연 (2013). “대한민국은 우릴 받아줬지만, 한국인들은 탈북자를 받아준 적이 없어요.”-댓

- 글에 나타난 남한사람들의 탈북자에 대한 인식과 공공 PR의 과제. <한국광고홍보학보>, 15권 3호, 187-219.
- 최종환·하진홍 (2016). 통일 관련 언론보도 논조 및 프레임 분석 연구: 김대중 및 박근혜 정부의 보수와 진보신문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4권 2호, 127-151.
- 통일부 (2019). <2019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서울: 통일부.
- 통일부 (2020). <주요사업-북한이탈주민 정책-정착지원제도>. Retrieved 1/26/21 from www.unikorea.go.kr
- 통일평화연구원 (2020). <2019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부록 II-1. 표8

Table 8. South Korean government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and inter-Korean relations since 1998

Gov	North Korea policies	Inter-Korean exchange	North Korean provocation incidents	North Korean defectors incidents and policies (Kim, 2004)
Kim Dae-jung (1997. 12.08. ~ 2003. 02.24.)	<p><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Policy with North Kore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Peac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Inter-Korea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Policy, Embracing North Korea Policy, and Sunshine policy -Dual program between security and conversatio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litics and economics' -Comprehensive reciprocity 	<p>1998. 11. 18. Beginning of Mt. Geumgang tour</p> <p>2000.06.13. ~15. The 1st Inter-Korean Summit</p> <p>/6.15 North-South Joint Declaration</p>	<p>1998. 06. Sokcho submarine incident/ 07. Finding of arming communist guerrilla bodies in Donghae / 11. Ganghwa Island submersible incident/ 12. Yeosu submersible incident</p> <p>1999.06.15. The 1st Battle of Yeongpyeong</p> <p>2000. 01. Pastor Kim Dongsik's kidnapping</p> <p>2001. Cheorwon/Paju DMZ Incident</p> <p>2002.06.29. The 2nd Battle of Yeongpyeong, NLL invasion of North Korean patrol boat</p>	<p>1997.01.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before Kim Dae-jung government)</p> <p>-North Korean defector policy: Quiet foreign policy, acceptance of all defectors, private negotiations, and pursuit of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GOs</p>
Roh Moo-hyun (2003. 02.25. ~ 2008. 02.24.)	<p><Policy of Peace & Prosper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omo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Realization of joint prosperity between the two Koreas -In pursuit of joint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Inheriting Dae-jung's government's policy for reconciliation and 	<p>2005.08.15. 8. 15 Inter-Korean Joint Event</p> <p>2005.09.19. Joint Statement/Kaesong Industrial Complex Construction/ The opening of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office/Enactment and promulgation of the Basic Act</p>	<p>2003.01.10. Withdrawal from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NPT)</p> <p>2005.02.10. Declaration of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p> <p>2006.07.05. Taepodong-2 Missile</p>	<p>2003.07.~ North Korean Defector Park Sang-hak(Founder of Fighters for a Free North Korea) spreading flyers to North Korean</p> <p>-North Korean defector policy: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p>

Gov	North Korea policies	Inter-Korean exchange	North Korean provocation incidents	North Korean defectors incidents and policies (Kim, 2004)
	<p>cooperation with North Korea</p> <p>-Revitaliza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p>	<p>for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2007.10.04. The 2nd Inter-Korean Summit/2007 Inter-Korean Summit Declaration</p>	<p>Launch</p> <p>2006.10.09. 1st North Korean nuclear test</p>	<p>And Settlement Support Act. (Continued 1999 amendment): Quiet Diplomacy, All Acceptance, Humanitarianism, Human Rights, and Prior Policy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p>
	<p>(Policy of mutual Benefits & co-prosperity)</p> <p>-Principles of practicality and productivity</p> <p>-Thorough principle and flexible principle</p> <p>-The principle of transparency based on national consensus</p> <p>-Principle of harmony between inter-Korean cooper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p>	<p>2010. ~ Sudden military confrontation and hostile disconnection continued</p> <p>2011.07.22. Inter-Korean denuclearization talks held</p> <p>2011.12. Kim Jong-il died</p> <p>2012.04. Launch of the Kim Jong-un regime</p>	<p>2008.03.27. deportation of South Korean officials from the Economic Cooperation Office in Kaesong Industrial Complex</p> <p>2008.07.11. The murder of a tourist in Mt. Geumgang</p> <p>2009.04.05. Kwangmyongsong-2 Satellite Launch</p> <p>2009.05.25. 2nd North Korean nuclear test</p> <p>2009.11.10. Battle of Daechaeong occurred</p> <p>2010.03.26. ROKS Cheonan sinking</p> <p>2010.11.23. Bombardment of Yeonpyeong</p> <p>2012.04. GPS Disruption / Attempts to manipulate the election using SNS</p> <p>2013.02.12. 3rd North Korean nuclear test</p> <p>2013.03.05. Annulment of the Armistice Agreement</p>	<p>2008.06. 'Crossing', the film about North Korean Defector, released</p> <p>2010.09.27. Amendment of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p> <p>2012.10.02. North Korean military knocking defection incident</p> <p>2013.01. Spying case of North Korean defection official</p>
Lee Myung-bak (2008.02.25. ~ 2013.02.24.)	<p>*Principle of change first in North Korea, 'Economic-oriented linkage strategy', 'Policy of persuading pressure on North Korea</p>			

Gov	North Korea policies	Inter-Korean exchange	North Korean provocation incidents	North Korean defectors incidents and policies (Kim, 2004)
Park Geun-hye (2013. 02.25. ~ 2017. 05.09.)	<p>2014.01.06. New Year's press conference Unification jackpot remarks (1.6), Declaration of the launch of the 'Unification Preparation Committee' (2.25) <the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Dresden's Declaration announcement (3.28) -Normaliz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through trust formation/ Reinforcement of infrastructure for unification -The pursuit of sustain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search for a virtuous cycle of peaceful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eacefu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p>	<p>2014. Leaders of the Kim Jong-un regime (byungseo Hwang, Ryonghae Choi, Yanggeon Kim) attended the closing ceremony of the Incheon Asian Games</p>	<p>2014.03.24. North Korean Drone Crash 2014.10.10. Yeoncheon Propaganda Leaflet Source Destruction Incident 2014.12.15. KHNP Hacking Case 2015.08.04. Wooden-boxed Mine Explosion in DMZ 2015.08.20. Bombardment of Western Border 2016.01.06. The 4th Nuclear Test of North Korea 2016.02.07. Kwangmyongsong-4 Satellite Launch 2016.02.10. Shutting Dow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2016.09.09. The 5th Nuclear Test of North Korea</p>	<p>2014.10. Group of North Korean defectors spreading flyers to North Korea 2015.11. Recommenda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human rights by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2016.04.05. Ryugyong Restaurant staff group defection 2017. Defection/spy rumor of Lim Jihyun, North Korean defection broadcaster</p>
Moon Jae-in (2017. 05.10. ~ 2020. 12.)	<p><Two-track policy of dialogue and pressure> -Application of a new peace policy -The direction of cooperation -Expansion of involvement policy *Based on the Kim Dae-jung and Roh Moo-hyun government's engag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pressure policy at the same time</p>	<p>2018.04.27. holding an Inter-Korean summit/ Panmunjom Declaration 2018.09.19. Pyongyang Joint Declaration 2018. the 1st North-American Summit</p>	<p>2017.09.03. The 6th Nuclear Test of North Korea 2019. ~ Short-range Missile Launches</p>	<p>2017.11.13. North Korean military defection and shooting in Panmunjeom 2019.06.15. Defection of wooden vessel in Samcheok Port 2019.11. Forced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Death</p>

Gov	North Korea policies	Inter-Korean exchange	North Korean provocation incidents	North Korean defectors incidents and policies (Kim, 2004)
				incident of a North Korean defector's mother and son 2020.11.03. North Korean defectors' iron fence damage and defection case 2020.06. Re-defection of North Korean defector accused of sexual assault

부록 II-2. 표8 (국문)

Table 8. 1998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관련 사건

장부	대북정책	남북교류	북한도발사건	탈북자 관련 사건 및 정책 (김일수, 2004)
김대중 (1997. 12.08. ~ 2003. 02.24.)	<p><대북후회협력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화, 화해, 협력의 3개 개념 -남북화해협력정책, 대북포용정책, 햇볕정책 -인보와 대화의 이중적 프로그램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한 경제협력 -포괄적 상호주의 채용 	<p>1998.11.18. 금강산 관광 시작</p> <p>2000.06.13. ~15. 1차 남북정상회담 평양 개최</p> <p>/6.15남북공동선언</p>	<p>1998. 6월 속초 무장공비 침투기도 / 7월 동해 무장공비사태 발건 / 1월 강희도 간첩선 침투 / 12월 여수해안 간첩선 침투</p> <p>1999.06.15. 제1연평해전</p> <p>2000. 1월 김동식 목사 남북사건</p> <p>2001. 철원 / 피주 DMZ 사고</p> <p>2002.06.29. 제2연평해전, 북경비정 NLL 침범, 여수 반잠수정 격침사건</p>	<p>1997.0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김대중 정부 이전)</p> <p>-탈북자정책: 조용한 외교정책, 지원수용, 비공개교섭, 국제기구 및 NGO와의 협력 추구</p>
노무현 (2003. 02.25. ~ 2008. 02.24.)	<p><평화변영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 공동번영 실현 -동북아 공동번영 추구 *김대중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을 계승 남북한 경제협력 활성화, 경제공동체 구성 	<p>2005.08.15. 8.15 남북공동행사</p> <p>2005.09.19. 남북공동성명/개성공단 건설/ 남북경협사무소 개소/ 남북한관계발전에 관한 기본법률 제정. 공포</p> <p>2007.10.04. 제2차 남북정상회담:2007 남북정상선언 채택</p>	<p>2003.01.10. 북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p> <p>2005.02.10. 핵무기 보유 선언</p> <p>2006.07.05. 대포동 2호 발사</p> <p>2006.10.09. 북한 1차 핵실험</p>	<p>2003.07. ~ 탈북자 박상화(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대북전단 살포 시작</p> <p>-탈북자정책: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999 개정안 자취): 조용한 외교, 지원수용, 인도주의, 인권차원, 대북후회협력 우선정책</p>
이명박 (2008. 02.25. ~ 2013.)	<p><비핵 개방, 3000 구성></p> <p><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용과 생산성의 원칙 -철저한 원칙과 유연성의 원칙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투명성의 원칙 	<p>2010. ~ 급격한 군사적 대결과 적대적 단절국면 지속</p> <p>2011.07.22. 남북 비핵화회담 개최</p> <p>2011.12. 김정일 사망</p>	<p>2008.03.27. 북한 개성공단 내 경제협력사무소 남한 당국자 추방</p> <p>2008.07.11. 금강산 관광재 개방자 세 피살사건</p> <p>2009.04.05. 광명성2호 발사</p>	<p>2008.06. 탈북자 관련 영화 '크로싱' 개봉</p> <p>2010.09.2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p> <p>2012.10.02.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p>

장부	대북정책	남북교류	북한도발사건	탈북자 관련 사건 및 정책 (김일수, 2004)
02.24.)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조화의 원칙 *신 북한변화론, 경제중심의 연계주의 전략, 대북 압박성 설득정책 핵심적 기조	2012.04 김정은 체제 출범	2009.05.25. 북한 2차 핵실험 2009.11.10. 대정해진 발생 2010.03.26. 천안함 피격 사건 2010.11.23. 연평도 포격 도발 2012.04. GPS 교란/ SNS 대신조작 시도 등 2013.02.12. 북한 3차 핵실험 2013.03.05. 정전합정 백지화	2013.01. 탈북 학교 공무원 긴급 사건
박근혜 (2013. 02.25. ~ 2017. 05.09.)	2014. 신남지회건- 통일대박 발인(1.6), '통일비우원회' 발족 선언(2.25)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 구상 발표(3.28) -신뢰형성을 통한 남북관계의 정상화/ 통일 인프라 강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추구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의 선순환 모색 *대북정책 없는 통일정책이며 '흡수동일 전제...등 비판 받음	2014. 김정은 정권 수석부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안전아시아게임 폐막식 참석	2014.03.24. 북한 무인기 추락사건 2014.10.10. 연천 대북전단 발원지 격파사건 2014.12.15.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 2015.08.04.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 2015.08.20. 서부전선 포격사건 2016.01.06. 북한 4차 핵실험 2016.02.07. 북한 광명성 4호 발사 사건 2016.02.10. 개성공단 기동 중단 2016.09.09. 북한 5차 핵실험	2014.10. 탈북자 단체 대북 전단 살포 2015.11. UN 시민권 장차적 권리규약위원회에서 북한이탈주민 인권권고 2016.04.05. 류경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2017. 탈북자 방송인 임지현 월북/간첩살
문재인 (2017. 05.10. ~ 2020. 12.)	<대화과 압박의 투 트랙 정책> -새로운 평화정책의 적용 -합치의 지향 -관여정책의 확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바탕/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압박정책 병행	2018.0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2018.09.19. 제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공동선언 2018. 제1차 북미정상회담	2017.09.03. 북한 6차 핵실험 2019.~ 수차례 단거리 미사일 발사	2017.11.13. 판문점 귀순 북한군 총격 사건 2019.06.15. 삼척항 동선 귀순 사건 2019.11. 탈북 선원 강제 복송 사건/ 탈북민모자 사망사건 2020.11.03. 북한이탈주민 철재 훼손 귀순 사건 2020.06. 성폭행혐의 탈북자 재일북

부록 II-3. 표9

Table 9. Emotional polarity directivity(positiveness/negativeness) and Descriptiveness on Attitude toward 'North Korean refugee' by governments from 2011 to 2014

	Emotional polarity directivity(positiveness/negativeness s) of media reports on N.K.refugee	Emotional polarity directivity(positiveness/negativeness s) of media reports on N.K.defector	Emotional polarity directivity(positiveness/negativeness) of media reports on N.K.refugee+N.K.defector +N.K.defector(p)
2010.7. ~ 2011.6.	0.03108 / -0.0150	0.02387 / -0.0129	0.02679 / -0.0137
2011.7. ~ 2012.6.	0.03211 / -0.0152	0.02454 / -0.0134	0.02699 / -0.0137
2012.7. ~ 2013.6.	0.03321 / -0.0160	0.02509 / -0.0138	0.02841 / -0.0143
2013.7. ~ 2014.6.	0.03356 / -0.0156	0.02619 / -0.0136	0.02907 / -0.0140
	Closeness	Acceptance	
2011	2.49857	2.43415	
2012	2.48688	2.39120	
2013	2.45573	2.41105	
2014	2.42350	2.36733	

부록 II-4. 표4

Table 4. Descriptiveness and Results of ANOVA on Language Intensity, Emotional Frequency, Polarity Directivity of News Reports toward 'N.K.refugee', 'N.K.defector', 'N.K.defector(p)' by Governments

	North Korean refugee						North Korean defector						North Korean defector (positively refined)																						
	N	M	S.D.	M	S.D.	n	N	M	S.D.	M	S.D.	n	N	M	S.D.	M	S.D.	n																	
Government	7,580	17,248	0.113	0.026	0.097	0.024	6,332	14,339	0.035	0.022	2,402	-0.015	0.013	44,264	0.104	0.022	0.093	0.020	33,277	0.027	0.019	9,632	-0.014	0.012	10,391	0.114	0.026	0.94	0.023	8,969	0.034	0.020	1,161	-0.015	0.013
The Kim	422	0.110	0.027	0.098	0.025	357	0.033	0.022	0.022	0.022	0.022	0.018	711	-0.013	0.011	-	-	-	-	-	-	-	-	-	-	-	-	-	-	-	-	-			
The Noh	1,255	0.112	0.024	0.098	0.022	1,019	0.030	0.020	0.021	0.021	0.018	14,223	0.104	0.022	0.095	0.021	11,113	0.027	0.018	0.018	0.012	2,619	-0.014	0.012	1,455	0.112	0.024	0.96	0.021	1,256	0.033	0.020	161	-0.013	0.011
The Lee	7,580	0.113	0.026	0.097	0.024	6,332	0.032	0.020	0.020	0.020	0.012	29,400	0.101	0.021	0.092	0.020	21,910	0.025	0.017	0.017	0.011	6,515	-0.013	0.011	7,261	0.114	0.025	0.95	0.023	6,163	0.032	0.020	928	-0.015	0.013
The Park	17,248	0.116	0.027	0.098	0.025	14,339	0.035	0.022	0.022	2,402	-0.015	0.013	44,264	0.104	0.022	0.093	0.020	33,277	0.027	0.019	9,632	-0.014	0.012	10,391	0.114	0.026	0.94	0.023	8,969	0.034	0.020	1,161	-0.015	0.013	
The Moon	17,776	0.117	0.026	0.099	0.024	14,688	0.034	0.022	0.022	2,660	-0.015	0.015	40,565	0.104	0.022	0.092	0.020	30,837	0.026	0.019	8,646	-0.013	0.011	8,155	0.116	0.024	0.96	0.022	7,012	0.034	0.021	983	-0.015	0.012	
Total	44,281					36,195				6,342		132,080			99,904		28,123		27,262		23,400		3,233												
						44,281				132,080		203,623			27,262		28,123		27,262		23,400		3,233												

	Source	DF	Sum sq	Mean sq	F	p
Language Intensity	Administrations	4	0.10	0.02	34.63	< .001
	Residuals	44,276	30.67	0.00	-	-
Emotional Frequency	Administrations	4	0.02	0.00	6.94	< .001
	Residuals	44,276	25.78	0.00	-	-
Emotional Directivity positive	Administrations	4	0.05	0.01	27.45	< .001
	Residuals	36,730	17.01	0.00	-	-
Emotional Directivity negative	Administrations	4	0.00	0.00	2.54	.038
	Residuals	6,337	1.18	0.00	-	-
Language Intensity	Administrations	4	0.24	0.06	124.89	< .001
	Residuals	132,075	62.84	0.00	-	-
Emotional Frequency	Administrations	4	0.09	0.023	58.15	< .001
	Residuals	132,075	53.12	0.00	-	-
Emotional Directivity positive	Administrations	4	0.08	0.02	59.57	< .001
	Residuals	99,899	33.76	0.00	-	-
Emotional Directivity negative	Administrations	4	0.00	0.00	13.09	< .001
	Residuals	28,118	3.61	0.00	-	-
Language Intensity	Administrations	3	0.04	0.01	19.34	< .001
	Residuals	27,258	17.13	0.00	-	-
Emotional Frequency	Administrations	3	0.02	0.01	11.53	< .001
	Residuals	27,258	13.69	0.00	-	-
Emotional Directivity positive	Administrations	3	0.02	0.01	14.33	< .001
	Residuals	23,396	9.41	0.00	-	-
Emotional Directivity negative	Administrations	3	0.00	0.00	1.9992	0.11
	Residuals	3,229	0.505	0.00	-	-

부록 II-5. 표6

Table 6. Descriptiveness and Results of ANOVA on Language Intensity, Emotional Frequency, Polarity Directivity of Two Partisan Media Reports toward 'N.K.refugee', 'N.K.defector', 'N.K.defector(p)' by Governments

Government	Media	North Korean refugee										North Korean defector										North Korean defector (positively refined)														
		Emotional Frequency			Emotional Directivity _Positive			Emotional Directivity _Negative			Language Intensity			Emotional Frequency			Emotional Directivity _Positive			Emotional Directivity _Negative			Emotional Frequency			Emotional Directivity _Positive			Emotional Directivity _Negative							
		M	S.D.	n	M	S.D.	n	M	S.D.	n	M	S.D.	n	M	S.D.	n	M	S.D.	n	M	S.D.	n	M	S.D.	n	M	S.D.	n	M	S.D.	n					
Number of article																																				
17,829																																				
The Kim	con	27	0.110	0.028	0.098	0.022	22	0.033	0.018	2	-0.003	0.004	495	0.088	0.021	0.091	0.020	387	0.0260.016	83	-0.014	0.012	-	-	-	-	-	-	-	-	-	-	-	-	-	
	pro	10	0.125	0.024	0.109	0.029	8	0.026	0.022	2	-0.027	0.010	132	0.103	0.022	0.093	0.020	90	0.0230.018	40	-0.009	0.008	-	-	-	-	-	-	-	-	-	-	-	-	-	
The Noh	con	56	0.105	0.027	0.093	0.025	41	0.027	0.022	14	-0.014	0.011	1,019	0.100	0.021	0.092	0.021	812	0.0260.017	179	-0.013	0.010	63	0.105	0.021	0.091	0.021	59	0.034	0.020	4	-0.009	0.007	-	-	-
	pro	128	0.111	0.021	0.094	0.020	107	0.026	0.017	17	-0.013	0.008	1,564	0.105	0.019	0.094	0.018	1,254	0.0230.016	272	-0.012	0.010	213	0.112	0.020	0.094	0.018	179	0.027	0.018	23	-0.013	0.014	-	-	-
The Lee	con	197	0.108	0.024	0.093	0.020	160	0.026	0.017	34	-0.018	0.013	1,900	0.098	0.019	0.090	0.018	1,432	0.0220.016	418	-0.012	0.009	274	0.111	0.021	0.094	0.021	225	0.028	0.018	41	-0.012	0.012	-	-	-
	pro	297	0.123	0.023	0.096	0.020	225	0.023	0.015	65	-0.015	0.012	1,426	0.103	0.018	0.091	0.017	1,001	0.0200.015	389	-0.013	0.012	370	0.113	0.024	0.096	0.021	278	0.027	0.019	84	-0.018	0.016	-	-	-
The Park	con	190	0.112	0.024	0.098	0.022	153	0.030	0.019	35	-0.014	0.012	1,626	0.100	0.018	0.090	0.018	1,231	0.0230.017	350	-0.012	0.010	186	0.106	0.024	0.091	0.022	159	0.027	0.018	21	-0.016	0.013	-	-	-
	pro	549	0.108	0.022	0.094	0.020	396	0.025	0.018	140	-0.012	0.009	1,916	0.102	0.018	0.092	0.017	1,241	0.0190.014	626	-0.012	0.010	246	0.109	0.021	0.092	0.017	210	0.024	0.015	33	-0.012	0.008	-	-	-
The Moon	con	298	0.107	0.021	0.095	0.019	209	0.024	0.016	81	-0.013	0.012	2,587	0.098	0.018	0.089	0.017	1,757	0.0200.014	761	-0.012	0.010	105	0.110	0.021	0.095	0.019	90	0.026	0.016	13	-0.014	0.012	-	-	-
	pro	485	0.107	0.021	0.095	0.019	364	0.026	0.019	107	-0.012	0.010	1,325	0.103	0.019	0.091	0.017	1,019	0.0210.016	283	-0.011	0.009	145	0.108	0.021	0.091	0.017	117	0.027	0.018	22	-0.009	0.005	-	-	-
2,237		1,685		497		13,990		10,224		3,401		1,602		1,317		241		1,602		1,317		241		1,602		1,317		241		1,602		1,317				
Total*		2,237		13,990		10,224		3,401		1,602		1,317		241		1,602		1,317		241		1,602		1,317		241		1,602		1,317						
17,829																																				

	Source	DF	Sum sq	Mean sq	F	P
Language Intensity	Administrations(A)	4	0.00	0.00	2.41	.047
	Media Orient(B)	1	0.00	0.00	0.91	.34
	A * B	4	0.01	0.00	3.04	.016
	Residuals	2,227	1.12	0.00		
	Administrations(A)	4	0.00	0.00	0.86	.49
Emotional Frequency	Media Orient(B)	1	0.00	0.00	0.07	.79
	A * B	4	0.00	0.00	2.73	.028
	Residuals	2,227	0.91	0.00		
	Administrations(A)	4	0.00	0.00	1.85	.12
	Media Orient(B)	1	0.00	0.00	3.22	.07
North Korean refugee Directivity_positive	A * B	4	0.00	0.00	2.62	.033
	Residuals	1,675	0.518	0.00		
	Administrations(A)	4	0.00	0.00	1.98	.096
	Media Orient(B)	1	0.00	0.00	2.25	.13
	A * B	4	0.00	0.00	1.55	.19
Emotional Directivity_negative	Residuals	487	0.06	0.00		
	Administrations	4	0.00	0.00	1.97	.097
	Media orient	1	0.00	0.00	2.24	.014
	Residuals	491	0.058	0.00		
	Administrations(A)	4	0.02	0.01	17.47	< .001
Language Intensity	Media Orient(B)	1	0.06	0.06	164.56	< .001
	A * B	4	0.00	0.00	3.26	.011
	Residuals	13,980	4.90	0.00		
	Administrations(A)	4	0.02	0.01	16.09	< .001
	Media Orient(B)	1	0.01	0.01	34.10	< .001
North Korean defector Emotional Frequency	A * B	4	0.00	0.00	0.34	.85
	Residuals	13,980	4.34	0.00		
	Administrations	4	0.02	0.01	16.09	< .001
	Media orient	1	0.01	0.01	34.10	< .001
	Residuals	13,984	4.34	0.00		

	Source	DF	Sum sq	Mean sq	F	p
Emotional Directivity_positive	Administrations(A)	4	0.03	0.01	32.96	< .001
	Media Orient(B)	1	0.01	0.00	29.39	< .001
	A * B	4	0.00	0.00	8.64	< .001
	Residuals	10,214	2.44	0.00		
Emotional Directivity_negative	Administrations(A)	4	0.00	0.00	0.82	.51
	Media Orient(B)	1	0.00	0.00	0.12	.73
	A * B	4	0.00	0.00	4.1	.003
	Residuals	3,391	0.33	0.00		
Language Intensity	Administrations(A)	3	0.00	0.00	4.17	.006
	Media Orient(B)	1	0.00	0.00	4.54	.033
	A * B	3	0.00	0.00	1.62	.18
	Residuals	1,594	0.62	0.00		
Emotional Frequency	Administrations	3	0.01	0.00	4.16	.006
	Media orient	1	0.00	0.00	4.53	.033
	Residuals	1,597	0.76	0.00		
	Administrations(A)	3	0.00	0.00	2.47	.06
North Korean defector (positively refined)	Media Orient(B)	1	0.00	0.00	0.90	.34
	A * B	3	0.00	0.00	1.62	.18
	Residuals	1,594	0.62	0.00		
	Administrations	3	0.003	0.00	2.46	.06
Emotional Directivity_positive	Media orient	1	0.0004	0.00	0.90	.34
	Residuals	1,597	0.62	0.00		
	Administrations(A)	3	0.002	0.00	1.64	.18
	Media Orient(B)	1	0.002	0.00	5.36	.02
Emotional Directivity_positive	A * B	3	0.002	0.00	2.03	.11
	Residuals	1,309	0.41	0.00		
	Administrations	3	0.00	0.00	1.64	.18
	Media orient	1	0.00	0.00	5.35	.021
Residuals	1,312	0.42	0.00			

Source	DF	Sum sq	Mean sq	F	P
Administrations(A)	3	0.00	0.00	1.71	.17
Media Orient(B)	1	0.00	0.00	0.72	.40
A * B	3	0.00	0.00	2.26	.08
Residuals	233	0.038	0.00		
Emotional					
Directivity_negative					
Administrations	3	0.00	0.00	1.68	.17
Media orient	1	0.00	0.00	0.71	.40
Residuals	236	0.039	0.00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지난 23년간 '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보았는가? '북한이탈주민', '탈북민', '새터민' 관련 언론 보도 빅데이터 분석

박종민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 교수)

주호준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 석사수료)

정영주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 박사수료)

김현우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 석사)

본 연구는 1998년 이후 '북한이(탈)주민', '탈북민', '새터민'이 포함된 네이버 내 기사 약 20만 개의 언어 형태소 및 감성어가 조사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기사 내 언어적 강도, 정서적 표현 빈도, 긍·부정 정서 방향성이 1998년 이후 5개의 정부와 두 가지 대립적 정파적 언론들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국민인식 변화를 이해하고자 분석 가능한 기간(2011 ~ 2014)의 2차 자료가 분석되었다. 먼저 호칭은 '탈북민(132,080개 기사)', '북한이(탈)주민(44,281개 기사)', '새터민(27,262개 기사)'의 순서로 사용되었다. '탈북민'이 가장 부정적이었고, 최근에는 '북한이탈주민'의 표현이 긍정적이고 일반적인 호칭이었다. 긍·부정 방향성은 '탈북민'과 '새터민'은 긍정적 기사들이 부정적 기사들에 비해 지난 20년간 높은 빈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사의 감성어와 중요한 남북관계 사건들의 시간적인 관계성을 보면, 큰 긍·부정 남북문제 사건이 발생하여 북한에 관심이 증가될수록 남한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낮아지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는 속칭 '언론 내 북한과 북한이탈주민의 대립적 관심 관점(북한 ↔ 북한이탈주민)'으로 표현된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별로 보면, 대북우호성향 정부의 언론 정서성 관점은 '북한과 북한이탈주민의 관심 대립 관점(북한 ↔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한 대북우호정서 관점(북한 ⊃ 북한이탈주민)'이 작동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남북한 관계가 급변하는 시기(김대중, 노무현, 박근혜정부 등)에 긍·부정 정서 방향성의 편차가 커지는 결과도 나타났다. 언론의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를 보면, 첫째, '북한이(탈)주민'+'탈북민(자)'+ '새터민' 관련 기사들은 보수언론들은 진보언론보다 낮은 언어적 강도 추세였다. 그러다가, 남북한 간 주요 쟁점이 발생하는 시기(예, 2009, 2015년)에는 보수언론의 강도가 높아져 진보언론과 유사해지는 패턴이 발견되었다. 둘째, 보수는 진보언론에 비해 '북한이(탈)주민' 보다 '탈북민'을 더 사용하고 있었고, '북한이(탈)주민' 관련 보도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 표현의 편차가 컸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사의 정서 표현 빈도는 오히려 보수 언론에서 많았고, 더 나아가 정서의 방향성은 문재인 정부 이외 모든 정부에서 보수언론의 긍정적 정서 방향이 진보언론보다 많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남성, 고연령, 고교육수준, 고소득, 진보성향일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의향도가 높았다.

핵심어 : 탈북민,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감성어 분석, 국민인식